

碩 士 學 位 論 文

『허클베리핀의 모험』에 나타난
진정한 자유의 의미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金 材 信

2008年 8月

『허클베리핀의 모험』에 나타난 진정한 자유의 의미

指導教授 卞 鐘 民

金 材 信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8年 8月

金材信의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2008年 8月

『허클베리핀의 모험』에 나타난 진정한 자유의 의미

金 材 信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指導教授 卞 鐘 民

본 논문은 마크 트웨인의 『허클베리 핀의 모험』에서 주인공 “혁”(Huck)이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며 겪게 되는 갖가지 경험을 고찰하여 그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자유가 무엇이며, 어떤 특질을 가지고 있는가를 세 가지 관점 즉, 신체적·정신적 구속으로부터의 자유, 사회적·문명적 위선과 구속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영혼의 자유로 나누어 연구한 것이다.

첫째, 혁은 더글라스 미망인 자매의 문명화교육으로 인한 숨 막히는 정신적인 압박감과 온갖 욕설과 폭력을 일삼는 아버지 팝이 가하는 신체적 구속으로부터 탈출을 시도한다. 혁은 신체적·정신적 구속의 상황으로부터 탈출하여 자연의 순리와 섭리의 지배를 받는 오염되지 않은 잭슨(Jackson) 섬으로 향한다. 그곳에서 자연인의 모습으로 진정한 내면의 자유를 느끼며 살던 혁은 흑인 노예 도망자 짐을 만나 자유의 여정을 계속하게 된다.

둘째, 혁과 짐은 미시시피 강을 뗏목으로 여행하며 바깥세상을 경험한다. 그들은 그린저포드 가와 세퍼드슨 가 사이의 숙원관계, 왕과 공작의 사기극, 서번 대령의 살인 등을 목격하게 된다. 이 모든 것에서 맹목적이고 편협한 교리와 물질만능주의와 속물근성, 비인간성과 잔인성, 그리고 귀족사회의 부조리와 특권의식 등의 사회악을 경험하게 된다. 혁과 짐은 이 사회적·문명적 위선과 기만으로부터 도피하여 인간성이 존중되는 건설하고 성숙한 사회를 꿈꾸며 강으로의 여행을 계속한다.

셋째, 혁은 흑인 노예 짐과의 여행을 통해 순수한 자아를 가진 자연인으로서 인간 본래의 마음 즉, 본연의 양심과 문명사회의 인습과 가치기준에 따르는 사회적 양심 사이에서 도덕적 갈등을 겪게 된다. 그 내적 갈등을 통해서 비록 그는 어린 소년이지만 본연의 양심에 귀 기울여 노예인 짐의 탈출을 도와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혁은 모든 인종적 차별에도 불구하고 짐을 자신과 동등한 인간성을 가진 인간 개체로 존중할 수 있게 되며 인간의 존엄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서로 사랑을 통해 함께 공존하고 서로가 성숙하

며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한 영혼의 자유를 추구한다.

결론적으로 트웨인은 혁의 자유추구 여정을 통해 인간의 가치를 부정하고, 자연과 조화하는 삶의 방식을 파괴하며, 순수한 번성을 억압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궁극적 자유가 모든 인류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시한다.



목 차

I. 서론	1
II. 자유추구의 과정 및 양상	
1. 신체적·정신적 구속과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5
2. 사회적·문명적 위선과 기만으로부터의 자유	17
3. 인간애의 발견과 영혼의 자유	28
III. 결론	41
Bibliography	44
Abstract	47

I. 서론

미국문학에서 마크 트웨인(Mark Twain, 1835-1910)이 차지하는 위치는 대단하다. 우선 그는 19세기 미국문학, 특히 사실주의 문학을 대표하는 중요한 작가이다. 그의 소설은 당 시대의 다른 미국 소설들과 비교할 때 특유의 사실주의적인 기법으로 독특한 재미와 감동을 자아내고 있다. 그의 소설은 풍부한 유머와 풍자적 어조를 통해 종교 및 사회의 모순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다양한 속어와 방언에 의한 꾸밈없는 문체로 생동감이 넘치고, 실제 인물에 근거한 등장인물간의 갈등을 통해 긴장과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나아가 당 시대의 사회적, 문화적 속성에서 엿보이는 갖가지 위선과 기만과 허위를 예리하면서도 해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특히 그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허클베리 핀의 모험』(*The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은 미국인들의 마음의 고향이라고 할 만큼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끊임없이 읽히고 비평적 관심을 받는 고전이다. 이토록 미국인들의 사랑을 받는 이유는 이 소설이 ‘미국인의 꿈’(American Dream)의 세계를 온전히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헤밍웨이(Ernest Hemingway)가 그의 소설 『아프리카의 푸른 언덕』(*The Green Hills of Africa*)에서 현대 미국문학은 『허클베리 핀의 모험』으로부터 출발 한다¹⁾고 밝힌 것이나, 하웰스(W. D. Howells)가 트웨인을 가리켜 “우리 문학의 링컨(the Lincoln of our literature)”²⁾이라고 언급한 데는 모두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 다루고 있는 ‘미국인의 꿈’과 ‘자유’의 정신을 높게 평가했기 때문이다.

1876년 프랑스가 미국독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기증한 자유의 여신상이 상징하듯 미국의 건국정신은 바로 ‘자유’라고 할 수 있다. 이는 1620년 영국에서 종교적 박해를 피해 네덜란드로 피신한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Mayflower)를 타고

¹⁾ Lionel Trilling, "The Greatness of Huckleberry Finn,"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 ed. Sculley Bradley and others (London and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77), p. 327.

²⁾ W. D. Howells, "My Mark Twain: Reminiscences and Criticisms," *Mark Twain: His Life and Works*, ed. I. M. Walker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0), p. 6.

미국 땅에 첫발을 내딛기 전 배안에서 맺은 「메이플라워 맹약」("The Mayflower Compact")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문서라고 할 수 있는 「독립선언서」에서 잘 드러난다. 또한 미국독립전쟁의 사상적 지도자로 추앙받는 토마스 페인(Thomas Paine)은 1776년 독립전쟁의 기폭제가 된 소책자, 「상식」("Common Sense")에서 자유를 향한 미국의 역사적 여정을 일찍 선언한 바 있다.

세계도처에서 압제가 판을 친다. 자유가 지구도처에서 사냥당해 왔다.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오랫동안 자유를 추방시켜왔고, 유럽은 자유를 이방인 취급하고 있으며, 영국은 자유를 추방하겠다고 경고해 왔다. 자유를 찾아오는 그 모든 피난민을 받아들여 때가 되면 인류가 필요로 할 도피처를 준비하자.³⁾

페인의 예지적 선언대로 미국은 그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계 도처에서 자유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도피처가 되어왔다. 미국은 실제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로, 또는 종교적인 이유로 새로운 꿈과 자유를 찾아 가는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어왔다.

사실상 이 소설은 당 시대의 다른 작가들에 비교하거나 트웨인의 다른 작품에 비교할 때 형식과 기법적인 측면에서 결점도 많은 소설이다. 막스(Leo Marx)가 밝힌바 있듯이, 『허클베리 핀의 모험』은 트웨인이 이전의 소설에서 보여주었던 전형적인 결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⁴⁾ 즉, 이 작품의 구석구석에는 여전히 감상적인 행동이나 말투, 과장된 익살이 산재해있고, 특히 작품의 후반부에 이르게 되면 『툼 소녀의 모험』(*The Adventures of Tom Sawyer*)에서 드러나는 평범한 소년들의 모험 이야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헉(Huck)이라고 하는 한 소년이 미시시피(Mississippi) 강을 따라 여행하는 중에 일어나는 사건을 주된 소

³⁾ George and Barbara Perkins, ed., "Common Sense," *American Tradition in Literature*, 8th ed. (New York: McGraw-Hill, 1994), p. 205.

⁴⁾ Leo Marx, "The Pilot and the Passenger: Landscape Conventions and the Style of *Huckleberry Finn*," *Mark Twain: Twentieth Century Views*, ed. Henry Nash Smith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63), p. 47.

재로 다루고 있는 단순한 구조는 그가 비교적 소설의 전통적인 요소들, 즉 성격 묘사나 구성(plot) 등에서 미숙하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이 19세기를 대표하는 미국소설로 자리매김 된 데는 바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정신적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인의 꿈과 자유의 탐색을 그만의 파격적인 사실주의 기법에 의해 효과적으로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인의 꿈과 자유라는 주제의식을 그만의 사실적 유머와 풍자가 넘치는 형식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표현하였다는 점에서 다음 김병철의 평가는 아주 적절하다.

..... (그는) 어떤 작가보다도 소설을 안 읽은 작가였다. 일반적으로 그는 너무도 폭발적이고, 너무도 근본적이고— 너무도 구속을 견디지 못하는 작가였으므로 자기가 만든 창작수법 외에는 결코 굴복을 모르는 작가였다. 그가 만든 혁이 인간이 만든 제도에 굴복하지 않는 자연아(the child of nature)였던 것처럼 트웨인 자신도 소설 작법이니 뭐니 하는 규칙에 구속을 받지 않은 자연아였던 것이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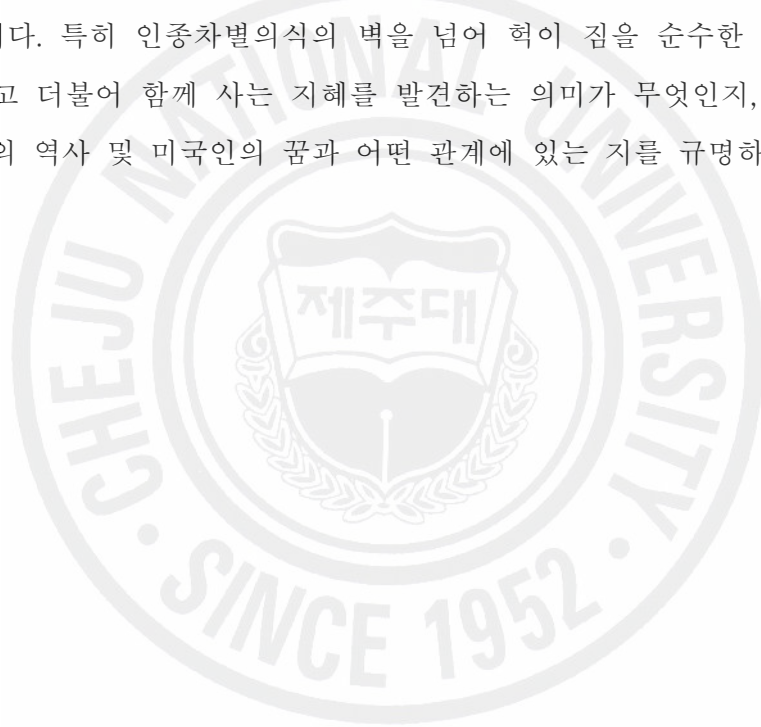
이 소설의 주인공 혁이 그 무엇에도 구속되기를 거부하고 자유를 향한 여정을 계속하는 것처럼 트웨인 자신도 앞서거나 아니면 기존의 다른 작가들의 형식과 기법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만의 창조를 위해 끊임없이 실험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자유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과 실험은 바로 미국의 역사와 문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신적 가치이다.

이토록 『허클베리 핀의 모험』에서 트웨인이 어린 소년 혁의 시각을 통해 구현하려 했던 사상의 핵심은 바로 자유의 정신이다. 이 자유의 정신은 곧 ‘미국인의 꿈’과 ‘개척정신’의 요체이다. 따라서 이 소설에서 혁이 짐과 함께 미시시피강을 여행하며 추구하는 자유의 탐색은 바로 미국적 정신유산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정신과 영혼을 엮매는 그 어떤 신체적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길 원한다. 그는 자신의 신체에 구속을 가하는 그 어떤 폭력으로부터 해방

5) 김병철, 『개정 미국 문화사』 (서울: 한신문화사, 1983), p. 47.

되길 원한다. 그는 자신의 도덕성과 순수한 인간성을 병들게 하는 그 어떤 문명의 이기와 위선과 기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길 원한다. 그래서 그는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자유롭게 판단하고 살아가기를 원한다. 자유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며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 바로 혁의 행로이자 트웨인의 메시지다.

이 논문에서는 주인공 혁이 추구하는 자유의 개념과 그 탐색의 여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혁의 자유추구 과정을 신체적·정신적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사회적·문명적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로 나누어서 고찰해 본 후 결국 혁이 사회와 제도와 인습을 피해 짐과 함께 발견하는 진정한 자유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볼 것이다. 특히 인종차별의 벽을 넘어 혁이 짐을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로 인식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지혜를 발견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발견이 미국의 역사 및 미국인의 꿈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규명하게 될 것이다.



II. 자유추구의 과정 및 양상

1. 신체적 · 정신적 구속과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혁은 남북전쟁 이전에 남부에 살던 열 서 너 살가량의 소년으로, 가족이라고는 그를 학대하려고 집에 돌아오는 아버지 밖에 있을 뿐이다. 그는 정규교육도 받지 못하고 관습적인 도덕이나 예절도 모르는 철부지 청소년에 불과하다. 그는 담배를 피우고 학교를 무단결석하고 거처도 불안정 하는 등 마을의 불량소년에 해당한다. 그는 마을의 불량 청소년인 톰(Tom Sawyer)의 무리에 합류하여 강도짓을 한다.

그러나 혁과 톰은 차이점이 있다. 톰은 문명사회에서 별 불편 없이 적응하며 단지 재미와 낭만을 위해 불량한 짓을 하는 데 비해 혁은 문명사회의 인습과 관습이 주는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고, 이 불편함에서 벗어나려다 톰의 일행에 합류하게 된 것이다.

더글라스 미망인은 나를 양자로 삼고 교양 있는 사람으로 만들거라 했어요. 하지만 이 아줌마가 어쩌나 매사에 엄격하고 격식을 따지는 지 밤낮 그 집안에서 지내는 일이 갑갑해서 죽을 맛이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자 나는 그만 그 집에서 도망쳐버렸지요. 옛날에 입던 흰 누더기 옷과 설탕을 담던 큰 나무통으로 되돌아와 다시 한번 자유를 누리는 몸이 되었지요.⁶⁾

이처럼 톰과는 달리 혁은 그를 양자로 삼은 더글라스 미망인의 구속을 견디지 못하여 가출한 경험이 있다. 이 때 톰이 찾아와서 “미망인 댁에 돌아가서 얹전하게 굴면 강도단에 넣어 주겠다.(I might join if I would go back to the

⁶⁾ Mark Twain. *The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97), p. 7. 앞으로의 인용은 이 책에 의거하며 (번역)인용문 말미의 괄호 속에 쪽수만 밝힌다.

widow.)”(7)고 하자 다시 마을에 돌아온다. 헉이 톰이 조직한 강도단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은 바로 문명사회로 돌아오는 것으로 문명에서 탈출하려는 자신의 소원에 상반된 행위이다. 또한 낭만적인 환상의 세계를 추구하는 톰은 현실적인 헉과는 판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은 서로 갈등을 벌인다. 처음 톰은 해적에 관한 이야기 책에서 얻은 지식을 기초로 하여 강도 놀이를 시작한다. 헉을 제외한 피터스버그(St. Petersburg)의 소년들은 정상적인 환경 속에서 정규적인 교육을 받은 모범생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출한 헉을 자신들의 놀이에 끼워주는 대신 가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조건을 든다. 그 조건은 항상 올바른 품행을 바라는 어른들이 만들어 놓는 문명화의 제도 속으로 헉이 들어가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토록 이 소설은 서두에서부터 “헉이 톰 일당과 질 나쁜 장난에 가담하며 자유를 즐기면서도 암전한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역설”(7)로 출발한다. 그 결과 헉은 모순되는 상황의 와중에서 점점 갈등하며 고독을 느끼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태너(Tony Tanner)는 헉을 ‘선천적인 선(natural goodness)’의 구현이라 보며, 헉은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원하며, ‘자연아(Child of Nature)’로서 자연 속에서 생활 하고자 한다고 설명한다.

클레멘스는 선천적인 선에 대한 신념, 즉 기존의 제도에서 물려받은 편견과 강제에 의해 타락되지 않은 고유의 적절한 기질을 보여 준다. 헉은 그런 믿음에 대한 주장이다.⁸⁾

실제 그는 교회와 학교에 가지 않으며 누구의 명령에 따라 행동할 필요도 없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소년이다. 그러던 중 헉은 더글라스 미망인 자매를 구하여 준 것이 인연이 되어 그들의 양자가 되어 더글라스 집에 같이 살게 된다. 그들 자매는 대체로 편협하고 완고한 유명한 귀족가문의 사람들로 당시 남부 문명사회의 인습을 따른다. 이런 상황 속에서 더글라스 미망인과 왓슨 양(Miss Watson)은 헉을 문명화시키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 여태껏 그 누구의 간

⁷⁾ Alan Trachtenberg, *Huck Finn*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77), p. 49.

⁸⁾ Tony Tanner, "The Lost America-The Despair of Henry Adams and Mark Twain," *Mark Twain: Twentieth Century Views*, ed. Henry Nash Smith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63), p. 161.

쉽이나 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는 혁은 그 교육에 잘 적응하기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견디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것은 혁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정신적인 압박감으로 다가올 뿐이다. 그래서 혁은 그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자신의 의지에 맞게 자유로이 살 수 있는 곳을 향해 탈출을 시도하게 되는 것이다.

문명화가 정신적인 구속을 가하는 첫 번째 장면으로 그들은 혁에게 옷을 입을 법과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려 한다. 더글라스 미망인이 머리를 숙여 아무 이상 없는 음식에 대해 중얼거리며 기도하는 동안 혁은 식사를 하지 않고 기다려야 한다. 그는 또한 “새로운 옷 속에 가두어 놓고 땀을 뻘뻘 흘리게 하고 온몸이 죄어 들게 하는(She put me in them new clothes again, and I couldn't do nothing but sweat and sweat, fell and cramped up.)”(6) 엄격한 규율과 격식을 배울 것을 강조한다. 다분히 현실적이며 자유분방하고 인간의 원초적 자의식을 지니고 있는 혁에게 이러한 문명사회의 관습은 조화로운 방식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위협적이고 이질적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더글라스 미망인 자매들은 또한 혁이 불경스러운 짓, 예컨대 술, 담배, 게으름에서 손을 떼게 한다. 담배를 피우고자 하는 혁에게 담배의 폐해를 일깨우려고 하는 더글라스 미망인의 말은 관심어린 충고라기보다는 형식적인 금지의 차원에 머무른다. 또한 이는 행동과 일치하지 않는 모순을 불러일으킨다. 언제나 깔끔하고 품위 있어야 하며 좋은 말과 행동을 강조하던 그녀가 스스로도 느끼지 못하는 그릇된 행동을 자처했을 때 혁은 또 다른 구속의 형태로 그녀의 행동을 받아들 이게 된다.

곧 나는 담배가 피우고 싶어졌고, 미망인 아주머니한테 담배 한 대만 피우게 해달라고 졸라보았지만 그녀는 막무가내였다. 담배 피우는 것은 나쁜 버릇이며 깨끗하지 못하니까 이제부터는 아예 담배를 피워서 안 된다는 것이다. 정말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흔히 있는 법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남에게만 심하게 구는 사람 말이다. 그녀는 자기 친척도 아닌데다가 이미 죽어서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모세에 관한 일을 가지고 골머리를 아프게 한다. 그러면

서도 내가 쓸모 있는 어떤 일을 하려고 들면 서슬이 퍼렇게 되어
필쩍 뛰는 것이다. 자기도 연방 코담배를 피워대면서 말이다. 자기
가 하는 일이니까 괜찮다는 식이다. (8)

미망인 자매 중 특히 왓슨양의 질책과 강요는 지나칠 정도이다. 그녀는 혁의
예의범절에 관해 “...하지 말라.(Don't...)”(50)라는 강한 금지의 말로 사사건건
잔소리를 한다. 그런 일련의 구속과 행동의 제재는 혁의 불만으로 이어진다.

“거기에 발을 올려놓지 말아라, 허클베리.” 라거나 “그렇게 들썩거
리지 말아라, 허클베리, 똑바로 앉아 있어라.” 그리고는 곧 “그렇
게 하품을 하고 기지개를 켜지 말아라, 허클베리, 왜 암전히 있지
못하니?”라고 잔소리하곤 했다. (8)

이처럼 그녀는 혁을 자신의 가치관이란 틀 속에 가두어 놓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쓰는 인물이다. 매사에 지켜야 할 예의범절, 왓슨 양의 수많은 요구사항과 금
지 사항들, 이 모든 것은 소위 문명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한 절차이자 규범들이
다. 왓슨 양은 바로 이런 규범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왓슨 양은 혁에게 경건함과 예의바른 태도를 강요하고 매일 저녁마다 흑인
노예들을 모아 놓고 “영적인 선물(the spiritual gifts)”(14)이라는 기도를 올린 다
음 잠자리에 들게 한다. 혁은 방으로 올라가 의자에 앉으며 “외롭고 쓸쓸해서 죽
어버리고 싶을 정도였어.(I felt so lonesome I most wished I was dead.)”(51)라
고 말한다. 이는 형식만을 강조하는 그녀의 계속되는 구속으로 인하여 차라리 죽
는 것이 낫다는 극도의 절망감과 심한 외로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혁
을 대하는 왓슨 양의 태도는 명령과 금지의 형식을 취한다. 이러한 강제적 교화
의 근저에는 자신의 것에 대한 편협한 집착과 타인의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
는 배타성이 깃들어 있다.

자유롭고 본능적 충동에 따라 그 누구에게도 간섭을 받지 않고 살아온 혁에게
는 이러한 행동강령은 견디기 어려운 규율이고 심한 구속이 된다. 이런 문명생활
의 규율은 혁을 괴롭게 만드는 동시에 그가 처한 사회에 적응할 수 없다는 소외

감을 주게 되고, 절망 속에 빠지게 한다.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 헉은 더욱 문명 사회의 틀에 박힌 관습을 싫어하며 문명에 지배당하기를 거부한다.

헉크의 열정적이고 보다 복잡한 도덕적 특성은 . . .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게으른 쾌락주의에 대한 자랑, 그리고 혼자 있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시인하는 것과, 문명을 싫어하는 것에 의해 납득될 것이다. 트웨인의 허클베리 핀 또한 결코 문명화되지 않는다. 헉은 사회적 순수함이었다. 그는 문명의 일부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⁹⁾

헉은 문명생활로부터 교화되기를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열외자적인 존재가 될 수 밖에 없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 사회가 만든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개인의 존재가 고립되는 동시에 생존마저 위협받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결국 헉은 문명에 동화되지 못하고 문명사회에서 탈출을 시도한다. 그는 문명의 굴레에서 벗어나 이전의 자유로운 상태인 헉 누더기를 걸치고 큰 사탕 통에서 기거하면서도 자유의 몸이 되어 만족한다. 헉은 또한 이러한 구속과 속박 속에서도 자주 대자연으로 돌아가서 평온한 자연을 만끽하곤 한다. 자연은 헉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는 안식처이다. 동화되지 못하는 문명사회 속에서 잠시나마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할 때 순수한 자연인으로서 정신적으로 평온함을 느끼는 것이다. 이것은 문명사회의 제반 구속, 즉 사사건건 간섭하는 더글라스 미망인과 권위주의적인 팡의 구속으로부터의 탈출을 의미한다. 그는 잭슨 섬에서 왔든 양의 흑인노예 짐을 만나 같은 배를 타면서, 그와 함께 각각의 탈출의지를 키우며 자유를 추구한다.

폭력과 무지로 대변되는 그의 아버지 팡의 신체적 구속은 헉이 기존의 문명사회에서 탈출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아버지는 50세 정도의 나이에 재산이 라고는 거의 없이 초라한 오두막에서 술과 담배만 즐기며 사는 사람이다. 그는 일자무식으로 헉에게 형편없는 육지거리를 해낸다. 그러나 아들과 아버지는 서로

⁹⁾ James L. Colwell, "Huckleberries and Humans: On the Naming of Huckleberry Finn," *PMLA*, 14/3(1971): 70.

답은 점이 많이 있다. 아버지가 욕지거리를 잘하고 술고래이듯 아들 혁도 부랑아 기질을 지니고 어린 나이에 담배를 피운다. 이런 측면에서 혁은 팝의 “거울 이미지”¹⁰⁾를 반영한다. 혁이 주술적인 미신을 신뢰하는 점도 그의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탓이다. 서슴없이 악담을 늘어놓는 점에서도 혁은 팝의 충실한 “견습생”¹¹⁾이다. 톰의 눈에는 혁이 악담의 천재이듯 혁의 눈에 비치는 팝 역시 그러하다.

이어 아버지는 욕설을 퍼붓기 시작하더니 생각나는 일, 생각나는 사람 모두를 저주한 다음, 혹시 빠드린 사람이 있을까봐 다시 한 번 깡그리 저주하고는 마지막 손질로서 전반적인 욕설로 골고루 저주했는데, 그 속에는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술하게 끼여 있었다. 그 사람들 차례가 되면, 그 새끼이름이 뭐더라 하면서 이욕 저욕 마구 내뱉는 것이다. (25)

이처럼 팝은 독설만을 퍼붓기 때문에 혁은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거의 갖지 못한다. 아버지 팝은 아버지로서 자식에 대한 애정이 없으며 지나치게 무책임하다. 그의 험클어진 머리카락, 남루한 차림, 창백한 안색 등은 그의 정신적인 황폐를 나타내 준다.

팝은 혁에게 신체적 구속과 위협을 가한다. 일 년 만에 아들을 만나도 반가와 하기는커녕 아들을 나무라고 아들에게 돈을 달라고 해서 술이나 마신다. 또한 자신보다 잘난 자식은 필요 없다는 이유로 혁에게 학교를 때려치우라고 한다. 그러면서 학교 근처에서 붙잡히는 날에는 실컷 두들겨 주겠다고 온갖 육과 폭력과 협박을 일삼는 것이다. 이처럼 팝은 단지 아버지라는 이유로 맹목적인 권위를 내세우며 혁을 구속한다.

평생 동안 재산이라는 것을 가져 보지 못한 팝은 혁을 미끼로 돈을 벌려고 친권소송을 한다. 그리고 그는 소송에서 법적으로 이김으로써 혁에게 우두머리로 행동하며 아버지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채 오직 아들의 돈을 빼앗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팝은 단순한 감금으로 만족치 못해 혁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또 다른 신체적 구속을 가한다. 그는 톰만 나면 소가죽 채

10) Harold Bloom, ed., *Huck Finn* (New York: Norton, 1962), p. 175.

11) *Ibid.*, p. 175.

찍으로 아들을 때리며 자신이 그의 아버지임을 항상 인식시키고자 한다. 마침내 혁에 대한 팡의 학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어느 날 밤 팡은 환각상태에서 접는 칼을 손에 들고 갑자기 혁에게 달려들어 죽이려 한다. 겁에 질린 혁은 용서해 달라고 애원하며 도망치지만 팡은 이에 아랑곳없이 웃음을 지으며 혁을 뒤쫓는다. 한번은 도망치려다 붙잡혔는데, 웃옷을 벗은 채 겨우 도망 나와 목숨을 건진 적이 있었다.

팡은 타락한 인물이며, 그의 외모나 행동은 인간성의 나쁜 예를 보여준다. 이는 불량한 소년인 혁이 그에 대한 거친 묘사에서 잘 드러난다. 그의 음주와 폭력은 혁의 교육을 중단시키며, 나중에 혁의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¹²⁾

이처럼 팡은 다정한 아버지가 되기는커녕 혁에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악한 범죄자와 같으며, 마침내는 혁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위험인물로 변모한다. 그러나 이것이 통하지 않게 되자 팡은 결국 아들을 납치하여 숲 속의 오두막집에 가두어 놓고 신체적으로 구속을 가하게 된다.

그런데 마침내 아버지가 호두나무 채찍을 마구 휘두르게 되어 나는 더 이상 견딜 재간이 없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였다. 게다가 아빠가 나를 방에다 가둬놓은 채 사흘씩이나 집에 돌아오지 않은 적도 있었다. 이럴 때에는 몹시 외로웠다. 아버지가 물에 빠져 죽은 것으로 판단했고, 이젠 이 통나무 집에서 빠져나가는 영 글러버렸구나 하고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하니 갑자기 무서워졌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곳에서 도망쳐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28)

이토록 혁은 팡에게 붙잡힌 구속의 몸이지만 팡의 폭력이 심해지기 전 혁은 오히려 이 기회를 문명으로부터 탈출하는 좋은 기회로 여긴다. 즉, 그는 자신이 추구하는 “사랑과 자유와 상반되는 죽음의 상징물”¹³⁾인 숲 속 오두막에서 감금

12) David Sloane, *The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 American Comic Vision* (Boston: Twayne Publishers, 1998), p. 24.

13) John E. Hart, "Heroes and Houses: The Progress of Huck Finn," *Modern Fiction*

생활을 역설적으로 더글라스 미망인 집에서의 격식과 규율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다. 혁은 더글라스 미망인 집에서의 문명화를 강요하는 구속된 생활보다 세수를 하지 않아도 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음식 앞에서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되며 게다가 왓슨 양의 잔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는 자연 속에서의 삶을 즐거워한다.

온종일 빈둥빈둥 들어 누워 담배나 피우고 낚시질이나 하며, 공부도 않고 책도 안보니 아주 편안하고 신나는 생활이었다. 두 달 남짓 시간이 흐르자 내 옷은 온통 누더기에 때 투성이가 되어 버렸다. 어째서 미망인 아주머니 집이 그렇게 마음에 들었는지 도통 모를 일이었다. (24)

마침내 혁은 공포와 폭력으로 대표되는 팝의 굴레를 탈출할 결심을 굳힌다. 팝이 마을에 나간 사이, 팝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살해된 것처럼 멧돼지를 잡아 그 피를 사방에 뿌려 놓는다. 마치 강도의 습격에 의한 죽음을 당한 것처럼 거짓으로 죽음을 꾸민 후 탈출을 시도한다. 혁의 이러한 거짓 죽음은 비참한 자신의 생활을 끝내는 한편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려는 욕망이 한데 합쳐진 것”¹⁴⁾으로 해석된다. 한편 정신 분석적인 관점에서 볼 때, 혁이 팝에서 탈출한 것은 “부모와 권위”¹⁵⁾로부터의 완전한 탈출이라고 할 수 있다. 콕스(James M. Cox)는 팝의 신체적 억압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꾸민 혁의 자기살해는 “죽음과 재생의 중심적인 유형”¹⁶⁾을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설명한다. 즉 혁의 과거의 자아는 사라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것이다. 이제 혁은 신체의 자유를 단순하게 추구하기 위해서 본능적 충동에 따라 행동하는 과거의 맹목적 도피자가 아닌 스스로 자아를 발견하려는 발견자로서의 모습이 서서히 엿보인다.

결국 혁은 어린 소년으로서의 상당한 수준의 살인 사건을 꾸며 놓고 미리 풀숲 속에 숨겨 놓은 카누를 타고 그의 아버지로부터 탈출하는데 성공한다. 혁은

Studies 14(1968): 40.

14) Sculley Bradley, ed., *The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 (New York: Norton, 1962), p. 423.

15) Wilfred L. Guerin, et al., *A Handbook of Critical Approaches to Literature*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79), p. 135.

16) James M. Cox, *Mark Twain: The Fate of Humor* (London: Princeton UP, 1966), p. 136.

팍과 마을 사람들이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추적하지 않을 것을 알고 모든 면에서 억압이 없는 미시시피 강물의 흐름을 따라 마음 편히 자유로운 여행을 시작한다.

자신을 죽은 걸로 했기 때문에, 혁은 강을 따라 내려오는 여행 동안 죽은 상태였다. 그는 실제로 새로운 역할을 원해서가 아니라 그를 억압하는 힘으로부터 피하기 위해 그 자신을 재창조해야했기 때문에 그는 사실상 다시 태어난 정체성 없는 인간이다.¹⁷⁾

자신은 더 이상 폭력을 일삼던 아버지 팍의 아들이 아니고 사회와 가정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는 순수한 본성만을 지닌 자유인이자 자연아이다. 이런 그에게 미시시피 강에서의 여행을 방해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는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자유를 만끽하며 그저 평화롭기 만한 여행을 즐긴다.

문명화의 억압과 고통스런 육체적 폭력으로부터 탈출을 감행한 혁은 무인도인 잭슨 섬의 자연 속에서 안락함과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위협적이고 복잡한 문명에 얽매인 인간 사회를 피해서 철저하게 무한한 자유를 즐기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완전한 자유의 기쁨도 잠시 일 뿐 혁은 이내 적막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잭슨 섬에서의 자유를 그리워하던 혁은 단조로운 잭슨 섬의 생활로 인한 외로움에 빠진다.

이렇게 외로움에 빠진 혁 앞에 도망친 노예 짐이 나타나게 되고 혁이 살해되어 죽은 것으로 알고 있는 짐은 유령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나 이내 다시 살아있는 혁을 만난 것을 기뻐한다. 여기서 혁은 노예 짐을 단순히 외로움을 함께 나눌 존재로 여길 뿐이지 이후에 자신이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될 도덕적 갈등의 존재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 잭슨 섬에서 짐과의 만남은 그에게 자아의 발견과 성숙을 위한 “입문(initiation)”¹⁸⁾의 계기가 된다. 그리고 짐은 가족과 가정으로부터 받은 신체적·정신적 구속으로부터 탈출하여 자유로운 삶을 기대하며 잭슨 섬으로 도망 온 혁에게 짐은 스승의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짐은 주인인 왓슨 양에게서 도망친 자신을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혁에게

17) *Ibid.*, p. 136.

18) Guerin et al., p. 146.

부탁한다. 짐의 간곡한 부탁에 주저하지 않고 혁은 사람들이 자신을 천한 노예폐 이론자라고 부르고, 입을 다물고 있다고 경멸할 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상관없다. 나는 말하지 않으려나.(. . . but that make no difference. I ain’t a-going to tell.)”(39)라고 즉석에서 약속한다. 이처럼 짐에게 협력함으로써 혁은 결국 당시 사회의 규범을 어긴 “범법자”¹⁹⁾가 된다. 결국 혁은 노예 짐의 탈출을 그 당시의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적극적으로 도와줌으로써 이후 도덕적인 갈등과 고민에 빠지게 된다.

짐의 탈출은 남부로 팔려 가느니 도망쳐서 인간답게 생활하겠다는 일면 사회의 구조적인 압제로부터 탈출해 자유를 되찾겠다는 선언과도 같은 것이다. 혁과 짐은 이 잦은 섬으로의 탈출을 시작으로 또 다른 사회와, 장소로 탈출을 시도하는데, 이것은 자연의 순리와 섭리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문명에 오염되지 않은 지역으로의 탈출이요 자유추구인 것이다. 그 탈출의 시도로 그들은 미시시피 강 하류를 여행하면서 강변 마을들을 방문하게 된다. 그 강변 마을들은 자연의 순리와 섭리가 미치지 않는 부조리한 사회제도와 편협하고 부패한 종교 그리고, 물질만능주의에 빠진 비인간성의 문명에 오염된 사회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혁의 문명사회로의 귀의는 상당히 비극일수 밖에 없는 것이다. 나아가 이것은 내면의 자연성이 파괴됨을 의미하며, 물질 지향적인 문명사회의 사고방식에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트웨인은 원시적이고 목가적인 자연을 배경으로 일어나는 문명사회의 생활과 사건에 대하여 비판적 입장을 취한다. 그의 문명관은 비판의 도를 넘어서 부정적이라고 할 만큼 비판적이다. 이런 그의 태도는 말년에는 염세적인 태도로까지 변하게 된다.

내 생각엔 우리의 문명은 낡고 비열한 것이고 잔인함, 허영심, 자만심, 비열함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다. 문명이란 말에 관해서는 나는 그 소리지라도 싫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짓을 전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명 자체는 그것이 속해 있는 지옥에 그대로 있는 게 좋을 텐데.²⁰⁾

19) Henry Nash Smith, ed., *Mark Twain: Twentieth Century View*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63), p. 47.

20) Van Wyck Brooks, *The Ordeal of Mark Twain* (New York: Dutton, 1920), p. 127.

이렇듯 마크 트웨인의 문명에 대한 견해는 시종일관 부정적이다. 헉이 아버지 팡이나 더글라스 부인 또는 왓슨 양으로부터 탈출해 자유를 찾고자 하는 것은 바로 제도와 문명으로부터의 탈출을 의미하며, 이는 작가인 트웨인의 부정적인 문명관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그의 부정적 문명관은 19세기 미국 문명사회의 모순된 사회제도와 관습, 또 여기서 파생되는 비인간적인 행동양식과 사고방식에 대한 혐오에서 시작된 것이라 볼 수도 있다. 백인들의 종족적 우월감, 산업사회에서의 황금만능주의, 윤리의식의 소멸, 권위주의 등에 대한 혐오라고 할 수 있겠다. 미국에 있어서 노예제도는 미국문명을 이룩하기 위해 또 다른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문명의 허구와 모순을 지니고 있다.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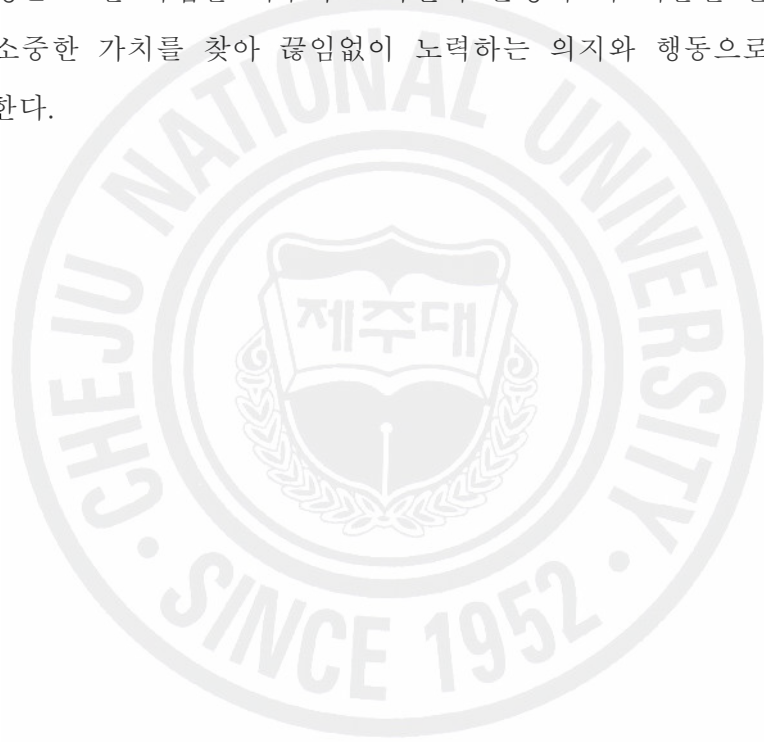
헉과 짐은 둘 다 문명사회에서 탈출하고 자유를 추구하고 있지만, 그 자유추구의 성격을 비교해 보면 조금의 상이한 특성을 가진다. 헉의 경우 자신을 문명화시키려는 더글라스 미망인 자매의 정신적 압박과 구속으로 벗어나 자연의 순리를 따르려는 자연인으로서의 욕망의 표출인 것이다. 그러나 그의 자유추구의 성격은 단순한 욕망의 표출일 뿐만 아니라 부조리한 문명사회의 그릇된 인습에 안주하지 않고, 현실을 비판하고 부정하며 과감히 탈출하려는 진정한 자유의 추구가기도 하다. 또한 권위주의자이고 술주정뱅이이며 폭력배인 그의 아버지로부터의 탈출은 전통적 가부장제도의 선천적인 부모의 맹목적 권위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노예 짐은 결코 자신을 팔지 않겠다는 주인의 약속위반으로 인해 남부로 팔려가는 것으로부터 도망을 시도한 것이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서 자유란 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이 지니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노예라는 신분 때문에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만 하는 현실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생활의 조건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차후에는 타지로 팔려간 가족을 탈출시키기 위한 기도로 이어진다. 따라서 짐의 탈출과 도피의 행각은 이러한 비인간적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소박한 의지를 포함한다. 다시 말해서 짐은 자신의 신분의 해방과 자유를 위해 노력하면서 잭슨 섬으로 탈출한 것이다.

21) Guerin et al., p. 54.

이토록 혁과 짐은 각기 다른 성격의 자유를 위해 문명사회로부터의 탈출을 시도하게 된다.

우리는 이 장에서 문명화로의 정신적 압박, 신체적 폭력과 구속, 그리고 사회의 폐단인 노예제가 존재하는 문명사회로부터 자유를 찾아 탈출하는 혁과 짐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 트웨인은 ‘문명’이라고 하는 개념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존재로 혁을 그리고 있다. 트웨인은 혁에게 문명에 길들여지지 않고 사회에 구속되지 않은 원초적이고 거친 태생을 부여한다. 이는 트웨인이 우리에게 본래적인 인간의 순수함과 때 묻지 않은 속성들을 지닐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셈이다. 이런 가능성은 또한 타협을 거부하고 자신의 본성에 귀 기울일 줄 알며 자신이 지향하는 소중한 가치를 찾아 끊임없이 노력하는 의지와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시사한다.



2. 사회적 · 문명적 위선과 기만으로부터의 자유

1865년 남북 전쟁의 종식으로부터 19세기 말엽까지의 짧은 시간동안 미국 사회는 산업 자본주의로의 가파른 성장을 보여준다. 맹목적인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미국인들의 건국 정신인 자유정신이 흔들리게 되며, 실리적이고 편의주의적이며 배타적인 사고가 만연하게 된다. 또한 정치의 부패, 균등하지 못한 부의 분배, 노예문제로 대변되는 인종 차별의 심화가 발전의 흐름과 함께 하고 있었다. 즉, 트웨인에 의해 ‘도금시대(Gilded Age)’라고 이름 지어진 이 시기는 물질적 가치에 대한 맹목적인 추구의 성향이 만연된 사회 조직과, 그 속에서 드러나는 온갖 위선과 거짓이 존재했다. 이런 당시 사회를 배경으로 산업화로 발달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간의 부조리와 비인간화를 혁과 짐은 미시시피 강을 따라 남부로 오면서 경험하게 된다. 그 결과 진정한 자유의 추구는 이러한 사회의 역기능에서 발생하는 악습에서의 탈출을 의미하고 또 인간성이 존중되는 건설적이고 성숙한 사회 건설을 의미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신체적 · 정신적 구속과 억압으로부터 탈출해 혁이 진정한 자유의 추구를 위해 시도하는 다음 단계는 짐과 함께 미시시피 강을 따라 카이로(Cairo)를 향해 여행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그는 여러 번 강을 벗어나 주변 강 마을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위선과 폭력과 사회악을 경험하게 된다. 혁이 경험하는 첫 번째 사회악은 강 위 난파선에서 경험한 도둑들의 위선과 음모였다. 이 도둑들은 약탈한 물건의 분배문제로 세 도둑이 서로를 속이며 믿지 못해 싸움을 벌인다. 그러다 결국에는 그 중 한 사람을 죽이자고 음모를 꾸미나 나머지 두 도둑도 배에 간혀 같이 익사하게 되는 사건이다.

혁과 짐은 뗏목을 타고 여행하던 중 월터 스콧(Walter Scott) 호라는 난파 증기선을 발견하는데, 여기서 혁은 빌(Bill)과 패카드(Jack Packard)라는 두 악당이 다른 악당 터너(Jim Turner)를 쏘아 죽이려고 공모하는 것을 엿듣게 된다. 터너가 항상 자기 몫 이상을 탐내고, 게다가 그들을 밀고하려 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빌이 권총으로 터너를 쏘아 죽이려 하자 패카드는 다른 ‘기발한 방법’을 떠올린다. 총으로 죽이는 것과 같은 정도로 ‘근사하게 목적을 달성할 방법’으로 그를

난파선에 끈으로 묶어두자는 것이다. 직접 살해하지 않더라도 난파선은 두 시간도 못 되어 산산조각이나 침몰하게 될 것이고, 터너가 그렇게 빠져죽는 것은 ‘자승자박’이 아니냐고 패카드는 자기의 계획에 스스로 만족해한다. 그런데 그들은 보트를 타고 난파선을 떠나려다가 터너의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이 탐나 빼앗아 오는 문제로 논쟁을 벌이게 된다. 이를 엿들은 혁은 자신들이 먼저 보트를 찾아내어 강물에 띄워 그들이 난파선에서 탈출할 수 없도록 한다. 혁은 감시인을 찾아가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위급한 상황을 알린다. 그러나 그는 핑계만 대고 좀처럼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혁은 할 수 없이 그 마을 부자의 조카가 침몰해 가는 배에 타고 있다고 거짓말을 한다. 그러자 그는 그 조카를 살려내 돈을 받아 낼 수 있다는 생각에 갑자기 태도가 달라져서 서두른다. 이는 사람의 생명보다도 돈을 더 중시하는 극단적인 인간의 잔인성의 한 면을 드러내는 장면이다.

여기에서 혁의 인간성이 드러난다. 자신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터너가 죽음에 직면해 있는 것을 알고서 빌과 패카드를 난파선에 고립시켜 감시인에게 붙잡히게 하려는 생각, 즉 “나는 적당히 꾸며내서 누군가 저 악당들을 구해주도록 하겠어. 나중에 그 악당들이 모두 교수형을 당하더라도 우선은 구해주는 것이 좋겠어.”(178)라는 생각에서 우리는 인간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혁의 기본자세를 알 수 있다. 즉 이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자연법적 진리를 추구하는 혁의 기본자세를 설명해 준다고 하겠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해 그는 인간 사이의 기만과 불신임과 비인간적이고 황금만능주의의 사회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인물들의 모습과 이를 구제하려는 혁의 노력에 대한 감시인의 태도는 당시 사회가 인간의 생명을 얼마나 경시했으며, 황금만능주의가 얼마나 사회에 만연돼있는 가를 짐작할 수 있다. 요컨대 문명사회는 인간의 생명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이해관계를 따져보고 그 이익의 정도에 따라 인간 생명의 존귀를 결정하는 어처구니없는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다.

『허클베리 핀의 모험』에 나타난 문명과 대조되는 자연 그 자체는 종종 믿음직스럽고 인자하며 매혹적으로 보이지만, 언제 이러한 자연에 변화가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위험을 항상 품고 있다. 혁에게 강은 자유를 향한 길을 열어주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그 길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혁은 노

에 신분인 짐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 자유의 장소인 일리노이(Illinois) 주 카이로까지 가기로 되어 있으나, 안개 때문에 그곳을 지나쳐 버리고 증기선에 부딪쳐 그들의 뗏목이 갈라져 서로 헤어지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콕스는 미시시피 강물은 주인공 혁에게 자유롭고 평온한 뗏목 생활과는 전혀 다른 귀족사회의 잔인한 악을 직접 경험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준비로 일종의 세례를 주는 것이라고 해석한다.²²⁾

짐과 헤어져서 혼자가 되어 마을에 우연히 들르게 된 혁은 그레인저포드(Grangerford) 가에 머물게 된다. 이곳에서 혁은 미시시피 강 여행을 통하여 두 번째 악을 경험하게 된다. 그레인저포드 가와 셰퍼드슨(Shepherdson) 가의 오랜 원한에 대한 이야기는 영국의 요크(York) 가와 랑케스터(Lancasters) 가 사이의 반목을 역사적 패러디(parody)의 형태로 구성시켜 그대로 미국사회에 옮긴 것으로 귀족사회의 잔인한 악의 문제를 다루어 보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가 잘 드러난 부분이다. 여기서 혁은 남부 귀족사회의 관습, 심리상태, 풍습과 가식적인 허상에 대한 귀족사회의 부조리를 체험하고 비난할 뿐 아니라, 고질적인 사회적 병폐에 대해 보다 광범위하고도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게 된다.

혁이 강 마을에서 한 두 번째 경험은 외양과 진실과의 차이를 잘 보여준다. 혁은 첫눈에 당시 규범으로서의 귀족제도에 대해 경외심과 존경심을 대표하는 그레인저포드 대령(Colonel Grangerford)을 예의 바르고 고상하며 점잖은 신사로 남부의 전형적인 귀족이라고 판단한다. 그레인저포드 가의 자녀들 또한 청교도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엄격한 가풍에 의해 예절 훈련이 잘 되어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혁이 다시 눈여겨 본 것은 그레인저포드 가의 아름다운 집과 내부의 훌륭한 장식들이 문화의 진수가 아니라 가식적인 속물근성과 지나친 형식주의의 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방 한가운데에 있는 테이블 위에는 사과와 꿀과 복숭아와 포도를 수북이 담아 놓은 고운 사기바구니 같은 것이 놓여져 있었으며 과일은 진짜가 아니었지만, 진짜보다 훨씬 빨갛고 노랗고 아름다웠다. 그런데 좀 흠이 있는 곳에는 그 밑으로 흰 석고나 그런 것들이 보였기 때문에 진

22) Cox, p. 146.

짜가 아님을 금방 알 수 있다. (83)

이처럼 진짜 과일 못지않게 실제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짜임이 드러나는 모조품이 이 집안의 실재를 장식하고 있다. 귀족적인 허영심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일례이다.

그레인저포드 가와 세퍼드슨 가와의 반목과 질시는 종교조차도 치유할 수 없는 고질적인 것이며 분쟁이 시작된 이유가 명확치 않듯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반목을 위한 반목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살인무기인 총을 무릎사이에 끼우거나 손으로 부터 가까운 벽에 세워 두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설교라는 의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설교의 내용이 좋았다, 신앙과 선행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된 운명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이것은 악의 모습을 뒤에 감추고 겉으로는 청교도주의에 철저한 듯한 위장과 기만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호프만(Daniel Hoffman)이 지적하듯이, “형제애(brotherly love)”²³⁾를 가르치는 교회에서 조차 총을 소지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에는 사랑과 관용이 깃들 여지가 없다. 여기서 혁은 사랑과 관용이라는 전통적인 기독교 미덕이 허구이며 가식임을 절감하게 된다. 그들의 정신적 바탕을 이루고 있는 교회는 단지 지극히 형식의 틀에 얽매인 기도의 장소인 동시에 두 가문의 간접적 힘겨루기의 현장으로 전락해 버렸으며, 그들이 칭찬해마지 않던 설교에서 들려오는 신뢰, 은총, 선행, 숙명 등에 대한 믿음은 현실과는 상관없는 공허한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혁은 소피아(Sophia Grangerford)의 심부름으로 교회에 갔을 때 아무도 없는 교회 안을 둘러보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 교회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마 돼지 한 두 마리를 제외하고는. 왜냐하면 문이 잠겨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돼지는 여름에 나무 바닥을 시원해서 좋아한다. 만약 네가 알아챘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이 가야 할 때만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돼지는 다르다. (169)

²³⁾ Daniel Hoffman, *Form and Fable in American* (New York: W. W. Norton & Co., 1961), p. 328.

여기서 트웨인은 혁이 깊은 생각도 없이 무심결에 하는 말을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사실 그의 종교관, 특히 기독교에 대한 견해는 아주 부정적이다. 그는 그의 여러 작품 및 기타 문필 활동을 통해 종교인들의 교의나 실생활이 내포하고 있는 위선적 허구와 아이러니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는 우선 사랑이라는 종교적 교의가 내포하고 있는 허구를 “인간은 유일한 동물이며, 인간만이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다가 이웃의 종교가 다르지 않으면 그의 목을 베어 버리는 동물이다”²⁴⁾라고 풍자한다. 트웨인은 교인들의 위선적인 경건함을 싫어했으며, 사람들이 교회에 가는 것은 진정한 신앙심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인 체면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두 윈수 집안의 소피아와 하니(Harney Shepherdson)가 사랑에 빠져 도망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벅(Buck)과 그의 부친과 형제, 그리고 셰퍼드슨 집안의 사람들이 서로 총에 맞아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참사가 일어난다. 그러나 혁은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Romeo and Juliet)을 연상시키는 이 두 연인을 맺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이유 없는 숙원관계의 고리를 끊고 숨 막히는 죽음의 전통을 단절하는데 기여 한다. 이와 관련하여 루빈스타인(Rubinstein)은 “그릇된 전통으로 야기된 오만함, 악이 창출되었다. 해결책은 소피아와 하니, 혁과 짐, 흑인과 백인, 모든 인간사이의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다”²⁵⁾라고 지적한다. 혁은 여기서 다음 세대의 평화로운 행복을 잉태하게 될 두 연인을 구제하게 되는 역할을 한 것이다. 이것은 두 집안의 문제만을 해결했다기보다 당시 사회의 만연한 허식, 사회악습의 잔재를 청산하는데 일조를 했다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며, 보다 나은 미래를 묵시적으로 보여줘 미국인에게 희망을 부여하는 의미도 지닌다.

혁의 친구였던 그레이저포드 집안의 막내인 어린 벅까지도 두 집안의 숙원에 얽힌 싸움에서 희생을 당하자, 혁은 톰과의 강도놀이에서 ‘살인’ 공모는 단순한 장난에 불과하나 벅의 경우 진짜 살인을 가져오는 ‘잔인성’을 경험하게 된 것이

24) Mark Twain, "Man's Place in the Animal World," *Mark Twain: Collected Tales, Sketches, Speeches & Essays 1891-1910*, ed. Louis J. Budd (New York: The Library of America, 1992), p. 211.

25) Gilbert M. Rubinstein, "The Moral Structure of Huckleberry Finn,"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 an Annotated Text*, ed. Sculley Bradely (New York: Norton, 1962), p. 383.

다. 이로 인해 혁은 탈출하기 위해 위장된 자신의 죽음에 이어 두 번째로 죽음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된다. 그레인저포드 가와 세퍼드슨 가의 분쟁은 진실의 모습이 철저하게 배제되고 허식적인 명예만 남아있어 가족 모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과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귀족계급에서 최고 덕목이라 할 수 있는 명예와 용기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잔인성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두 집안사람들의 이러한 죽음을 목격한 혁은 그레인저포드 가의 가족들이 만들어준 옷을 벗어버리고 떠나면서, 귀족들의 형식적인 겉치레보다 진실한 인간의 모습이 더욱 소중하다는 것을 절감한다.

세 번째 사회악의 경험으로 혁은 카이로를 찾아 또 다시 여행을 하던 중 아칸소(Arkansaw)의 귀족인 셔번(Sherburn) 대령이 술에 취한 보그스(Boggs)를 총으로 쏘아 죽이는 장면을 마을 사람들과 함께 보게 된다. 술을 마시면 보그스는 반드시 이 마을의 유지인 셔번 대령에게 달려들어 시비를 걸곤 한다. 권위주의적인 모습에 자부심이 강해 보이고 옷을 잘 입는 셔번 대령도 그레인저포드 집안 사람들처럼 언제나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로 나름대로 남부 귀족의 품위를 생활의 규범으로 삼는 인물이다.

이윽고 흰 살이 넘어 보이는 거만하게 생긴 사나이가, 이 마을에서 틀림없이 가장 좋은 옷을 입은 것 같다. - 가게에서 나오자, 떠들고 있던 구경꾼들은 길가로 비켜서서 길을 터주었다. (115)

그레인저포드 가의 경우는 원인도 모르는 맹목적인 반목의 인습에 의해서 상대편 집안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지만, 귀족사회의 권위를 내세우는 셔번의 경우는 명예가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 그는 설령 보그스의 시비가 술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 해도 그것은 자기의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일이라 생각한다. 여기서 그는 보그스에게 이런 행패는 진절머리가 난다며 한시까지는 참겠지만 그 후에 단 한번이라도 입만 병긋했다간 가만 두지 않을 꺼라 말한다. 여기서 셔번이 명예에 손상 받았다는 감정과 그의 귀족으로서의 거만함이 잘 드러난다. 자기가 경고한 시간을 보그스가 지키지 않자 셔번은 총을 뽑아 들고, 쏘지 말라고 애원하는 보그스의 딸이 지켜보는 앞에서 잔인하게 무방비 상태인 보그

스를 살해한다. 보그스를 쏘아 죽인 후 총을 다시 넣고 유유히 사라지는 셔번의 냉혹하고 잔인한 모습은 명예를 지키려는 귀족의 권위에 치중한 나머지, 더욱 귀중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그 사회에서만 통용이 가능했던 오만한 귀족적인 특권의식과 잔인함을 보여준다. 더욱이 “나이가 열 다섯 살쯤 되며 여간 귀엽지 않은” 보그스의 딸이 슬퍼하는 모습은 셔번의 잔인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아칸소마을에 있는 건달들은 보그스의 살인사건에 적극 참여하는 또 한무리의 동참자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지루하면 길 잃은 개에게 기름을 덮어 썩어 불에 태우거나 그 개가 양철 냄비를 물려고 자기의 꼬리를 따라 어지럽게 뱅뱅도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한다. 이처럼 아칸소 마을의 건달들과 주민들은 모두 보그스의 술 취한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며 무엇인가 사건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잔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커다란 흰 모피 비단 모자를 쓰고 살인 사건을 조사하러 나온 사람과 함께 보그스가 총에 맞아 죽어가는 잔인한 살해사건이 일어나던 당시의 모습을 재연해 보기도 한다. 이와 같이 보그스가 살해되고 나서 마을 사람들이 소동을 벌이는 장면에서는 문명사회 인간들의 잔인성이 여실히 드러난다. 한 인간의 죽음을 엄숙하게 대하거나 슬퍼하는 게 아니라 단순한 흥밋거리로 취급하고 만다. 린은 그들의 이런 사고방식은 “인간의 고통을 서커스 구경하듯 하는 사회의 냉혹함”²⁶⁾이라고 비판한다.

여기서 혁은 보잘것없는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유린할 수 있다고 보여주는 인명경시의 풍토를 여실히 보았을 뿐만 아니라, 특권층의 권위주의의 만연을 생생히 접할 수 있었다. 트웨인은 귀족이라는 신분의 미명아래 또 자신이 한 말을 지키기 위해, 맹목적인 명예의 신봉 때문에 인명의 경시가 합리화되는 귀족들의 허식과 그릇된 권위주의에 심한 회의를 나타내고 있다 하겠다. 혁은 자신이 겪은 마을에서의 비인간적 사건과 그들이 자행하는 사회적 부조리에 대해 몸서리를 치면서 악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낸다. 그는 이들의 잔악한 행위, 즉 인명에 대한 최소한의 동정도 없이 보그스의 죽음을 단순히 지켜보며 즐기는 사회에 혐오감을 느끼며 자유추구를 계속한다.

²⁶⁾ Kenneth S. Lynn, *Mark Twain and Southwestern Humor*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59), p. 237.

트웨인의 귀족주의에 대한 혐오는 왕(King)과 공작(Duke)의 등장으로 극에 달한다. 악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왕과 공작은 극한 대조를 보이며 이들이 만나는 사람들은 속기 쉽고, 어리석으며, 잘 흥분하여 사기 행위의 대상으로 쉽게 이용당한다. 헉과 짐이 뗏목 위에서 평온함을 즐기고 있을 때 그들의 신분을 왕과 공작이라고 사칭하는 두 명의 사기꾼이 이들이 타고 있는 뗏목으로 올라온다. 그들은 야외집회에서 가짜설교, 곡마단의 흥행사기, 금주 강연, 춤 교습, 돌팔이 치과 의사 노릇, 점술 등을 통하여 닥치는 대로 탐욕을 부리는 자들로 헉에게 인간의 황금만능주의에 눈먼 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주요 인물로 등장한다. 이들은 명분도 근거도 없이 헉과 짐의 유일한 안식처인 뗏목에서 주인노릇을 하며 같이 동행한다.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따라서 헉과 짐은 이들의 구속과 속박으로 인해 자신들의 자유추구 의지 및 여정에 끊임없이 제약을 받는다.

왕과 공작은 전혀 근거 없는 출생의 비밀을 운운하면서 자신들 스스로를 왕과 공작으로 둔갑시키면서, 헉과 짐을 시종처럼 부린다. 그러나 왕과 공작의 신분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헉은 뗏목의 평화를 위해 이들의 거짓말을 모르는 체 한다. 슬로안은 이러한 헉과 두 사기꾼의 모습을 어린양과 사자가 함께 살고 있는 모습에 비유하여 “그러나 그(헉)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하여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모르는 체 한다.- 바넘(Barnum)의 박물관의 양과 사자가 같은 집을 차지하고 있는 ‘행복한 집’²⁷⁾이라고 한다.

이들 두 사기꾼은 마을에서 미시시피 강을 왕래하면서 온갖 비행을 일삼는다. 한 예로 두 악당은 그럴듯한 가면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를 감춤으로써 사기행각을 벌이는데, 왕이 연출하는 사기행각의 첫 번째 대상은 감상주의와 비이성적 신앙을 지닌 포크빌(Pokeville) 주민들이다. 헉과 함께 “포크빌 캠프 집회”를 관전하던 왕은 곧 그 집회에 참석한 주민들이 광신적임을 간파한다. 그리하여 그는 이런 광신적인 분위기 속에서 목사의 요청으로 단상에 뛰어 올라가 그럴싸한 거짓말을 청산유수 같이 늘어놓는다. 한편 포크빌 주민들은, 왕의 위선과 사기를 간파하지 못하고 해적의 회개에 감동하여 즉석에서 모금운동을 벌여서 왕에게 돈을 건네준다. 이렇게 왕은 비이성적 신앙을 지닌 감상적인 주민들을 이용하여 사기극으로 그들을 속이고 자기의 성공에 만족스러워 한다. 여기서 트웨인은 그

27) Sloane, p. 88.

럴듯한 가면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악당들의 기만을, 그리고 그러한 악당들에게 값싼 동정심을 가지다가 결국 속아 넘어가는 마을 주민들의 어리석음을 풍자하고 있다. 이웃의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단돈 한 푼 내놓지 않을 사람들이 종교집회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왕의 이야기의 진위를 가려볼 생각도 없이 너도나도 모자에 돈을 던지는 어리석은 행동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마침내 그들의 사기행각을 알아차린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붙잡아 린치를 가하는 모습을 본 혁은 오히려 그들을 동정하게 된다. 혁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선량한 성품, 순수한 양심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글쎄, 그것을 보는 것은 나를 아프게 만들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 즉 불쌍한 동정심이 가는 깡패들이 안됐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서 그 이상으로 그들이 겪을 곤란함은 없을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보기에 끔찍한 것이었다. 인간은 서로에게 지독히 심하게 할 수 있는 존재이다.
(301-302)

그들이 물질적인 탐욕에 사로잡혀 같은 인간들을 기만함에도 불구하고 집단 폭력을 당하는 곤경에 처하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자신의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며 이들을 동정한다. 이것은 혁이 물질 만능주의와 비인간화와 같은 문명사회의 폐단에 구속되지 않는 순수한 자연아로서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대표적인 왕과 공작의 사기의 행태는 그들이 콜리온스(Tim Collions)에게서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신분을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영국에서 건너온 숙부로 변장하여 윌크스(Wilks) 집안에 나타나는 장면이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고아가 되어 의지할 곳이 없게 된 윌크스 집안의 자매들은 자신들의 유산을 모두 가로채려는 속셈을 전혀 모른 채 두 사기꾼의 말을 신뢰하고 유산을 모두 왕과 공작에게 넘겨주게 된다. 이렇듯 왕과 공작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계급 사회, 혹은 귀족사회의 격식, 그리고 이들이 추구하고 있는 세속적 가치관 등은 서로 뒤엉켜서 물질만능 사상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위선과 거짓, 폭력과 억압을 가져온다.

잔인성과 탐욕의 모습을 보여주는 왕은 노예 가족들을 서로 멀리 떨어진 다른

곳으로 팔아 버린다. 혁은 이러한 비인간적인 사기꾼들의 노예매매 광경을 보고는 “인간으로서 태어난 것이 부끄러웠다.(It was enough to make a body ashamed of the human race.)”(131)라며 깊은 도덕적 혐오감과 가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 혁은 노예 가족들의 생이별을 알고 슬퍼하는 제인(Mary Jane)의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된다. 그는 한때 이 두 사기꾼의 정체를 폭로한 뒤 일어날지도 모르는 노예 짐과 자신의 안전에 대해 염려하나 “좋다. 위험을 무릅쓰자. 단지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시험해 보기위해 화약에다 불을 붙이는 격이지만 이번에는 대담하게 사실을 이야기 하자.(I'll up and tell the truth this time, though it does seem most like setting down on a kag of powder.)”(354)라고 결심한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선한 양심에 따라 제인에게 왕과 공작의 사기연극에 관한 모든 사실을 알려 준다. 그리고 혁은 이를 통해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난다. 즉, 그녀에게 전모를 밝힘으로써 거짓된 양심을 바로 세우고 진실된 혁으로서 다시 탄생하게 된다. 이처럼 혁이 자신의 안전을 희생하면서 인간 본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그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하여 깨닫게 되는 중요한 과정이 된다.

윌크스 집안 사건에서 두 사기꾼의 탐욕을 보고 제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데서 볼 수 있듯이 혁은 상식보다는 지혜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소년이며 부드러움과 친절함을 지닌 모습을 보여준다. 혁의 이러한 용기 있는 행동은 자신이 추구해온 자유의 가치가 높을수록 시련의 정도도 크고 자유추구 의지 또한 강렬해 짐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그는 인간 내면의 순수성과 인간미를 그대로 간직한 채 자유를 찾아 항해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혁이 잭슨 섬을 탈출하여 뗏목여정을 하면서 강 주변마을에서 벌어지는 온갖 형태의 악을 목격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는 산업화로 빚어진 물질 만능주의로 인한 속물근성과 비인간성, 귀족사회의 특권의식과 부조리, 형식주의, 인명 경시 등, 문명사회의 모든 악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하며 그 악의 결과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그리고 그 반응은 언제나 정신적 고통을 수반한다. 그럴수록 악이 가득한 인간 사회에서 탈출하려는 그의 의지는 더욱 강해진다. 요컨대 그는 인간 내면의 순수성과 인간미를 그대로 간직한 채 문명사회의 위선들을 경험하고 그런 병폐들이 존재하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찾아 여정을 계속한다.

이처럼 트웨인은 순수한 어린아이 혁과 순진한 흑인 노예 짐의 눈을 통해서 당시의 사회제도가 지니고 있던 비인간적, 반인륜적 모습을 풍자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또한 그러한 제도적 억압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혁과 짐이 추구하고 있는 자유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 가를 비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인간애의 발견과 영혼의 자유

혁에게 있어서 자유는 양심의 회복과 내면적 성장의 의지를 포함한, 좀 더 도덕적인 양상을 보여준다면 짐에게 있어서의 자유는 노예제로 대표되는 사회의 억압으로부터 탈출하고, 그것의 비인간적 형태를 고발하는 외향적이면서도 풍자적인 기능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혁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자유는 모든 사회적·관습적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삶의 양식을 지니고 있어야 함은 물론이려니와, 그러한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개인의 도덕적 성찰이 수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혁의 이런 도덕적 성찰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미시시피 강을 따라 짐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충분히 아파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얻어지게 되는 것이다.

혁이 짐과 뗏목생활을 동행하게 된 계기는 무인도 잭슨 섬에서의 만남이었다. 혁과 마찬가지로 짐은 왓슨 양에게서 탈출해 자유를 찾아 아무도 살지 않는 이 섬에서 숨어들어 있었다. 혁은 짐을 발견하자마자 너무 반가워했으나 짐은 혁이 자신의 행방을 고발하지 않을 까 걱정한다. 그것은 짐이 혁도 역시 보편적인 백인 소년, 즉 자신을 인간으로 인정하기 이전에 함부로 부릴 수 있는 노예로 인식하는 그런 소년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내 혁은 전혀 고발할 생각도 없으며 자신도 역시 백인사회를 방랑하는 중이라고 짐을 안심시킨다. 이것은 짐을 자신과 동등한 인간으로서 인정한 성숙한 인식이라기보다는 어차피 문명사회로 돌아가지 않을 테니 고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단순한 생각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혁이 처음부터 짐을 고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금전적 가치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섬에서 외로움을 잊게 해줄 친구로서 여긴다는 점이다. 여기서부터 혁이 정신적, 도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티브가 주어진 셈이다.

혁은 사람들과 더불어 문명사회에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무인도 잭슨 섬에서의 자유는 또 다른 외로움을 가져온다. 그 상태에서 혁은 그야말로 고독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동지인 짐을 만난 셈이다. 어떤 규칙도 법도 없는 자연 상태의 무인도에서는 흑인과 백인은 의미가 없다. 특히 짐과 혁이 문명생활에 지친 도망

자임은 서로에게 각별한 동질감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물론 헉이 짐을 자신과 같은 완전한 인간임을 의식하는 데는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리지만 헉의 이러한 생각은 성장할 수 있는 발판 역할을 한다.

헉이 자연아 임은 분명하지만 그 동안의 사회생활은 그에게 흑인에 대한 편견과 자신의 도덕성과는 별개로 사회적 양심이라는 것을 갖게 하였다. 그래서 잭슨 섬에서 짐을 백인으로부터 보호하고 탈출시키면서도 내적 갈등과 고민을 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사회적 양심이란 남의 소유인 흑인 노예의 탈출을 방조해서는 안 된다는 당시의 사회적 가치에서 나온 양심이다. 이것은 헉의 내면적인 선의 문제가 아니라 문명, 사회의 가치기준과 같은 외부의 가치들에 의한 양심이다. 트웨인은 본래 양심을 “사물의 선악, 정사를 판단하고 명령하는 능력”²⁸⁾이라 간주하면서도 본래의 의미보다는 사회의 보편적인 질서와 상식이 내면화 된 것이자 사회의 강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인간의 순수한 자아를 속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그는 헉을 인간의 순수한 자아를 가진 자연인으로 설정해 놓으면서도 문명화된 가정이나 사회 속에서 살아 어느 정도 그 가치기준에 쫓아 있는 사회적 양심을 가진 인물로 그리고 있다.

헉의 성격 중 가장 중요한 특질은 그가 사회적 양심을 뛰어넘는, 문명사회의 인습과 가치기준을 거부하는 자연아라는 점이다. 그는 더글라스 미망인 집에서의 품위 있는 문명생활을 견디기 힘들어하고 자진하여 자유를 찾아 떠나는 자연인이다. 즉, 사회제도나 규범, 가치관, 문명에 의한 양심이 아닌, 인간 본연의 양심 즉, 인간이 본래 가지는 선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인물이다. 만약 그가 자연인이 아니라 문명사회에 익숙해져 있는 문명인이라면 그의 사회적 양심과 본연의 양심이 갈등을 겪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반면 그가 완전한 자연인이라면 역시 두 양심 사이에서 갈등할 필요가 없다. 흑인 노예가 탈출하는 것을 방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문명사회의 가치기준일 뿐이므로 갈등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기간은 길지 않지만 더글라스 미망인 집에서 양자로 지내면서 그녀의 교육과 학교생활을 통해 문명을 어느 정도 습득해 일차적으로 사회인으로서의 노예제도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 그는 백인은 소유자이고 흑인은

²⁸⁾ Robert Sattelmeyer and J. Donald Crowley, *One Hundred Years of Huckleberry Finn* (Jefferson: University of Missouri Press, 1985), p. 159.

소유 대상이 된다는 것, 흑인은 백인의 재산이 된다는 문명사회의 가치 기준을 무심코 받아들여 이미 알고 있는 상태이다.

혁의 사회적 양심이 드러나는 단적인 장면은 짐이 자신과 대화 상대자가 되지 못하는 무지함을 드러냈을 때 “나는 너와 말하는 것이 시간낭비라는 것을 알았어. 너는 대화하는 방법도 배우지 못한 흑인에 불과해. 그래서 그만 둘래.”(164)라고 말하는 데서 잘 드러난다. 그리고 자신과 톰이 한 장난에 대해 마치 짐 자신이 마녀를 만난 것처럼 떠들어대는 것을 보고 “짐은 노예로서도 형편없어.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얼어붙은 꼴을 봐.”(74)라고 말하며 짐을 경박하고 허풍스러워 노예로서마저 제격이 아니라고 단정 짓는 모습에서도 나타난다. 이처럼 자연인인 혁조차도 기본적으로는 흑인과 백인을 동등시하지 않는 사회적 양심의 소유자이다.

잭슨 섬에서 탈출하여 미시시피 강 하류로의 여정을 통해 자유의 추구를 같이 실행해 온 혁과 짐은 그들 각자의 귀착지가 서로 다르고 각자가 추구하는 자유가 서로 다르다. 하지만 그들 나름대로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잘 극복하면서 또 그 역경의 극복으로 보다 성숙함을 보이면서 궁극적인 자유를 추구하게 된다. 특히 혁은 짐과의 여행을 통해 짐에 대한 사회적 양심과 본연의 양심의 충돌로 인한 갈등과 번민을 계속하게 되고, 그 내적 갈등과 고민을 통해 혁이 도덕적으로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혁이 경험하는 첫 번째 도덕적 갈등은 혁과 짐이 자유의 땅 카이로에 근접해 간다고 생각되자, 짐은 곧 얻게 될 자유에 대한 희망에 차서 기쁨의 전율을 느끼는 반면, 혁은 짐의 탈출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양심의 가책에 떨게 되는 장면에서 나타난다. 짐의 탈출을 방조했다며 사회적 양심의 가책을 느끼던 혁은 여행을 하다 노예 추적꾼들을 만나면서 그 도덕적 갈등에 결론을 내릴 기회를 갖는다. 즉 혁은 도망친 노예를 찾는 사람들에게 짐을 고발할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혁은 잭슨 섬으로부터의 탈출을 계기로 그와 짐 사이에 형성되었던 무의식적인 동일시가 깨어지고 혁은 자신을 문명인으로 만들기 위해 애썼던 왓슨 양을 떠올리며 짐을 돕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는 도덕적인 갈등에 빠지게 된다. 혁은 짐의 탈출을 도와주고 싶은 인간적인 본연의 양심과 사회적인 양심 사이에서 갈등하게 된다. 그러나 그는 순간적으로 그의 인간적인 면과 친절

함을 생각하며 짐이 전염병에 걸린 “백인”(He’s white.)인 자신의 아버지라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짐의 안전을 지켜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혁의 도덕적 행동은 잭슨 섬에서 그가 탈출한 노예 짐을 고발하지 않기로 한 결심과 마찬가지로 그의 도덕적인 결정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써 그는 외로움을 나눌 상대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²⁹⁾ 그러나 혁의 행동이 단순한 우연이나 일시적 필요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미시시피 남부로의 여행 전에는 혁은 짐을 백인과 같은 하나의 인간으로 부족하다고 여겼을지 모르나 여행의 시간이 흐름에 따라 혁은 점차 그를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게된다. 예를 들어 짐은 교대로 뗏목의 보초를 설 때 혁의 차례가 와도 잠든 혁을 깨우지 않는 장면이나, 새벽에 혁이 깨어보면 짐은 아내와 자식생각을 하며 흐느껴 울고 있는 장면에서 혁은 많은 감동을 받는다. 더군다나 짐은 딸 엘리자베스(Elizabeth)가 성홍열에 걸려 귀가 멀게 된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여 자신의 말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딸을 때린 일을 몹시 후회한다. 이 장면에서 가족을 생각하는 짐의 이렇듯 진솔한 모습은 단순히 그를 도망친 흑인 노예로만 여겼던 혁에게 큰 영향을 준다. 결과적으로 혁은 “. . . 그리고 나는 백인들이 그들의 가족을 위해서 하는 것만큼 많이 그가 그의 가족을 위해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 그것은 자연스러워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렇다(. . . and I do believe he cared just as much for his people as white folks does for theirs. It doesn’t seem natural, but I reckon it’s so.)”(125)라고 말하며 짐도 흑인이기 이전에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넘치는 소중한 인간임을 인식한다. 그리고 미시시피 강 위에서 짙은 안개로 인해 헤어졌던 짐을 다시 만나 느끼는 안도감에서도 드러난다. 또한 짐의 목적지인 카이로가 가까워지자 짐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혁이 느끼는 “우리(us)”라는 인식에서 잘 나타난다. 말하자면 혁은 짐을 더 이상 흑인 노예가 아닌 자기 삶의 동지이자 순수한 한 인간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혁의 의식은 흑인 노예도 백인과 동등한 인간성을 가졌다는 높은 도덕의식으로 발전한다.

²⁹⁾ Richard P. Adams, “The Unity and Coherence of Huckleberry Finn,” *Twentieth Century Interpretations of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d. Claude M. Simps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68), p. 43.

이러한 도덕적 갈등을 통해서 혁은 흑인에 대한 백인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성숙함을 보인다. 이것은 혁이 추구하고 있는 진정한 자유추구의 궁극적 목적, 즉 인간적인 아름다움이 내재된 사회, 가식적이고 문명의 부작용과 같은 산물인 노예제도가 없는 평등한 사회 구성에 진일보한 궁극적 자유추구의 결심이다. 남북전쟁의 원인이 되었던 흑인의 인권문제와 노예제도는 혁을 내면적으로 심한 갈등을 겪게 하고 성숙시킨다. 혁은 흑인 짐도 자유가 필요한 한 인간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짐을 동정하고 자유를 찾는 동반자로서 함께 뗏목생활을 한 것이다. 혁이 백인이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갖게 되는 백인 우월주의 즉 기존의 가치 관념이 혁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고 있다는 본연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했던 것이다.

혁은 짐을 진정한 인간으로서 평등한 위치로 간주하게 된다. 이것은 혁의 내면적 성숙을 의미하는 것이며, 자유추구의 궁극적 목적에 한껏 가까이 접근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잭슨 섬에서 공통의 목표로 만난 이후 혁은 도망하는 노예의 탈출을 도와야 하는지 아니면 그를 신고해야 하는지 도덕적으로 갈등하게 된다. 갈등이 고조되어 가다가도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제도적 도덕성, 즉 사회적 양심보다, 본인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인간적인 정에 더 비중을 두게 됨으로서 노예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짐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

혁이 도덕적으로 성장하는 또 다른 모습은 윌크스 사건 이후에 왕과 공작이 짐을 40달러에 팔아 버리자, 혁이 짐의 탈출에 적극 참여하고 도와주는 장면에서 잘 나타난다. 혁은 짐을 노예로 팔아버린 왕과 공작을 보며 다시 한번 노예제도에 대한 심한 회의와 비판적 갈등을 겪게 된다. 앞서 혁은 카이로에 가까이 왔을 때 짐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고민하던 중에 노예 추적꾼을 만나 결국은 백인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기를 모면하는 방관적인 협조자로서의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짐의 탈출을 묵인하는 수동적 태도가 아니라 펠프스(Phelps) 농장에 갇혀 있는 짐의 탈출에 능동적으로 협조해야 하는 직접적인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는 왓슨 양에 대한 배신감으로 괴로워한다. 즉 혁은 왓슨 양의 도망한 노예를 도와줌으로써 평소 사회적 관습의 틀에 얽매어 생활했고, 한 때 자신에게 그러한 교육을 담당했던 그녀를 배반해야 한다는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 짐에 대한 고마움과 우

정 속에서 느끼는 양심의 소리 사이에서 방황한다.

짐이 팔려간 후 그들의 자유추구는 좌절된 상황에 처하게 된다. 혁은 그토록 오랫동안 짐이 자유추구를 위해 애써온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것을 슬퍼하며 다시 한 번 내적 갈등에 빠지게 된다. 혁은 그의 본연의 양심에 따라 왓슨 양에게 짐의 행방을 알리는 편지를 쓰지 않을 생각을 한다. 그렇게 되면 왓슨 양이 배은망덕한 짐을 남부의 농장으로 팔아넘길 것이기 때문이다. 설사 왓슨 양이 짐을 팔아넘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을 사람들이 도망쳤던 짐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한편 그의 사회적 양심은 그가 노예의 자유 추구를 도와주었다는 사실이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마을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면 틀림없이 자신을 경멸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는 편지를 쓸지 안 쓸지에 대한 심적 갈등에 빠지게 된다.

그는 그 갈등 속에서 짐의 탈출을 도와준 자신의 사악함을 이제까지 지켜보기만 하던 신의 섭리가 이제는 자신을 처벌하려고 한다고 느낀다. 또한 그의 왜곡된 양심은 그의 의식 속으로 집요하게 파고 들어와 “영원한 지옥 불”을 상기시킨다. 그래서 그는 영원한 지옥 불의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 기도를 드리려 하지만 한 마디의 기도도 나오지 않음을 알고 이 기도를 통해 얻으려는 섭리가 자신을 속이는 거짓임을 안다. 그리고 신의 섭리도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서 기도를 포기한다.

그리고 혁은 마음의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억누르지 못한다. 짐이 자유를 못 얻고 노예로 남을 바에야 차라리 그의 가족이 있는 왓슨 양의 노예로 다시 돌아가 고향에서 가족과 함께 있는 편이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여 짐의 주인, 왓슨 양에게 짐의 행방을 알리는 편지를 쓴다. 그 순간 혁은 이전에 짐의 고발을 결심했을 때 느꼈던 기분과 같이 홀가분한 상태가 된다. 그는 그 순간의 심정을 속죄자의 심정에 비유하며 “나는 기분이 좋았으며 죄를 깨끗이 씻어냈다. 그 기분은 처음으로 내 삶에서 느껴본 것이었다. . . .”(282)라고 말한다.

그러나 모순되게도 혁이 편지를 씌으로써 짐을 일개 노예로 완전히 남 대하듯이 한 순간, 그의 눈앞에는 그동안 자신에 대해 온갖 사랑과 온정을 베풀어 주던 짐의 모습이 떠오른다. 때론 친구와 같은 모습으로, 때론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그의 동반자 역할을 해주었던 짐과의 기억을 생각하게 된다. 짐의 그런 모습

은 이제껏 왜곡된 양심에 의해 억눌려 있던 그의 순수한 양심을 자극시킨다. 그는 이런 두 양심의 충돌 가운데서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그가 왓슨 양에게 편지를 띄움으로써 “좋은 곳(the good place)”에 갈 것인가, 아니면 편지를 찢고 짐을 구출해냄으로써 “나쁜 곳(the bad place)”에 갈 것인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기로에 서있기 때문이다. 마침내 혁은 지금까지 왜곡된 자아에 의해 억눌려 있던, 사회적 관습에 위배되는 자신의 순수한 결정에 따라 “옳지. 그럼 난 지옥으로 가기로 하자.(All right, then, I will go to hell.)”(169)라고 말하며 편지를 찢어 버리고 짐을 구하기로 결심한다. 여기서 혁이 지옥의 영원한 불에 대한 공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편지를 찢어 버리고 짐을 구해 내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은 결국 지금까지 기존 가치관의 영향으로 이루어진 왜곡된 “양심”과 본원적인 선한 “성품”의 투쟁에서 후자가 승리하였음을 의미한다.

혁은 극적으로 내면의 갈등을 극복하고 자신의 희생을 감내하는 궁극적 자유 추구의 성숙을 이루게 된다. 다시 말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 할뿐만 아니라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짐을 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이제 그는 흑인노예를 단순히 하나의 소유물인 재산으로 생각하며 노동의 도구나 수단으로 생각하고 취급하던 단계에서 하나의 평등한 인간 개체로 존중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한 것이다. 혁의 이러한 결심과 관련하여 슬로안은 “사건의 멜로 드라마식의 재미 때문에, 혁의 독백으로서 대체되며, 이 독백은 미국 소설사에서 진정으로 위대한 발전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³⁰⁾라고 말하며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한편 막스는 혁의 이러한 결심을 “억압적인 사회의 거부”³¹⁾라고 지적하고 있다.

짐의 노예탈출을 돕는 대신 지옥으로 가는 벌을 받겠다는 혁의 결심에서 그 당시 청교도적인 영향을 받은 주일학교 소년의 모습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신뢰하는 흑인노예 짐의 생명의 존엄함을 백인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그의 탈출을 도와주려고 한다는 점에서 혁이 의식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하였다는 점이다. 즉, 어린 소년 혁은 그 당시의 사회적인 억압에 순응하지 않고 과감하게 자신의 양심에 의한 판단에 따라 지옥의 형벌을 당하더라도

30) Sloane, p. 87.

31) Leo Marx, "The Machine in the Garden," *Mark Twain: Technology and the Pastoral Idea in America*, ed. Kenneth S. Lynn (London: Oxford UP, 1977), p. 338.

노예인 짐의 탈출을 도와주겠다는 완전한 자아를 지닌 도덕적 인간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일에 혁이 여기에서 짐의 자유를 돕지 않고 자신이 추구하는 모든 종류의 억압과 사회의 악으로부터 탈출하여 완전평등과 선이 존재하는 세계로의 여행을 계속한다면 혁의 마음상태는 여전히 짐의 구출을 도와야만 한다는 도덕적인 책임감에 얽매이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두 번째 도덕적 갈등의 의미는 혁이 짐에 대한 차별의식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데 있다. 이는 곧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완전평등과 선의 세계에서 억압받지 않는 자유와 노예 짐이 추구하는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자유의 성격이 그 가치 면에서 다를 바 없음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혁의 무의식 속에서 잠재되어 있던 내면적 자유로의 여행이 그의 의식 속으로 올라옴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짐을 구출하기로 결심한 혁은 짐의 탈출을 돕는 대신 지옥으로 가기로 하고 특별한 계획도 없이 신의 섭리에 의존하고 짐이 갇혀있는 펠프스 농장으로 가게 된다. 혁은 이곳에서 펠프스 집안의 조카인 톰으로 오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콕스는 “마침내 펠프스 농장에서 입문이 완성된다. 혁은 톰 소여로 다시 재생하며 이때 죽음의 이미지가 사라진다.”³²⁾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톰의 등장으로 작품의 내용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콕스는 “죽었다고 생각하던 혁이 다시 살아 자신의 모습을 찾게 되는 이야기”³³⁾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소 구조적 결함이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 부분이 아주 중요함을 강조한다. 짐의 탈출에 임하는 톰의 태도는 전혀 진지성이 없이 장난스럽기만 하다. 반면에 혁은 자기 스스로의 생명이 달려 있는 듯 심각하고 진지하다. 이는 그만큼 짐에 대한 의식의 차원에서 혁이 거둬 태어났음을 의미한다. 작품이 처음 시작할 때 혁과 톰이 만나듯 끝나는 무렵에 다시 혁과 톰이 만난다. 톰은 짐을 대하는 태도에서 처음과 변함이 없는 데 반해 혁은 놀라울 만큼의 변신을 가져왔다. 이런 면에서 펠프스 농장에서의 짐 구출 장면은 바로 혁의 재생과 발전을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이다.

혁으로부터 짐 구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톰은 자신이 동생인 시드(Sid)로 가

32) Cox, p. 147.

33) *Ibid.*, p. 147.

장을 하고 짐을 구출하는데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톰의 말을 듣고 혁은 훌륭한 집안에서 엄격한 교육의 혜택을 받은 톰이 사회적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노예 탈출을 돕는 행동에 참여하겠다고 해서 의아하게 생각한다. 짐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톰은 끊임없이 인위적인 구성물들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그것들은 그를 탈출시키는데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이며, 오히려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장애물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톰은 모험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이러한 과정을 계속 진행시키고 결국 총상을 입게 되는 위험을 자초한다.

톰이 계획하고 있는 짐 구출과정의 장면들을 살펴보면, 톰이 짐을 인간으로 대하기보다는 자신의 흥미를 충족시켜주는 놀이의 대상으로 생각한다. 그의 마음은 온통 옛 모험극의 주인공들에 대한 동경심과 영웅심이 가득할 뿐 짐에 대한 인간적인 배려가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악한 의도는 아니었지만, 톰이 보여준 행동은 자칫 비극적인 결말을 이끌 수도 있는 위험한 요소를 지니고 있다. 오랜 시간동안 도피의 과정을 함께 하며 짐에 대한 진정한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그를 탈출시키고자 했던 혁에 비해 톰의 의도는 지극히 단면적인 수준에 머무른다.

혁과 톰이 이토록 다른 모습과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들이 자라면서 겪은 경험과 더불어 자연과 조화하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톰에 비해 혁은 가정이나 학교 혹은 교회를 통한 사회화의 과정을 거의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러한 사회화의 과정 없이 자연과 조화하며 사는 방식을 터득한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주된 삶의 근거지인 자연환경은 그가 본래 인간의 순수함을 지닌 채 그것과 동화되어 살 수 있는 바탕을 이룬다. 이것은 사회화의 과정에 물든 톰이 지니지 못한 혁만의 고유한 특성이라 할 수 있다.

혁 그 자신은 강 즉 신의 신하이다. 그리고 그는 그가 모시고 있는 존재가 신성한 자연이라는 것을 아는데 매우 가까이 접근해 있다. 그가 살고 있는 세계는 신을 모시기에 완벽하게 환경을 갖추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연적 모습으로 전달하는 존재들과 의미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³⁴⁾

34) Trilling, p. 320.

트릴링의 주장에 의하면 헉이 경험하고 있는 자연은 단순한 주변 환경의 의미를 뛰어넘어 삶의 지침이 되어주는 역할을 한다. 마치 강의 신의 시종처럼, 그가 섬기는 자연의 신성함에 복종하고 그 의미를 깨달아 실천하려는 모습은 우주적 질서에 순응하는 가장 자연스런 인간 본성의 구체적 표현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문명사회에 대한 헉의 태도는 단순한 탈출과 도피의 의미를 넘어 순수한 인간의 본성을 지키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와 냉철한 현실 비판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제 노예상태였던 짐이 자유인이 되었으므로 억압과 악으로부터 헉의 자유추구를 위한 여행을 방해하는 요소가 사라진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쉐리 고모가 그를 양자로 삼아 다시 문명화시키겠다고 하자, 그것은 전에 경험한 끔찍한 것이라며 거절한다. 그리고 그는 영지(Territory)로 떠날 것을 결심한다.

헉이 영지로 떠나가려는 것은 왓슨 양과 팡으로부터의 탈출과 그 성격을 달리 한다. 즉, 왓슨 양과 팡으로부터의 탈출이 단지 신체적 구속 및 정신적인 압박감으로부터의 탈출인데 반해, 영지로 떠나감은 그 자체가 톰의 구출 소동으로 인해 잠시 중단되었던 자신이 완전평등과 절대 선이 실현되는 세계로의 여행이 계속되어 짐을 의미한다. 결국 헉은 문명세계에 속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존재할 것을 암시한다.

헉은 그것이 문명화되지 못한 자유이기 때문에 영지의 자유를 추구하려 한다. 아마도 더 나은 표현이 문명화되지 않은 자유이다. 그것은 진정한 인간인 헉이 마침내 자기도 모르게 도달하는 실제로 유일한 진짜 자유이다.³⁵⁾

다시 말해 자유추구를 위한 탐색여행에서 헉은 자신이 추구하는 진정한 자유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 회의를 느끼게 된다. 그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온갖 악을 체험함으로써, 인간은 진저리나는 종족이라는 비극적인 인식을 얻게 된다. 헉은 정신적 고통 및 도덕적 갈등 속에서 부패된 사회적 실상을 목격하고 자신이 찾으려는 절대자유가 이 사회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헉은 고통스

³⁵⁾ Roy Harvey Peace, *One Hundred Years of Huckleberry Finn* (Jefferson: University of Missouri Press, 1985), p. 321.

러운 일련의 탐색여행을 통해 비록 자기 성숙의 “입문”을 하지만 또 다시 자신을 구속하려고 하는 문명사회로부터 격리된 지역인 영지로 떠날 결심을 한 것이다.

혁이 향하는 영지는 모험과 개척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문명화의 손길이 닿지 않은 순수한 자연의 상태를 의미하기도 한다.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며 살고자 하는 혁에게 그러한 결심은 타당하다. 또한 이것은 그의 자유추구 의지가 여전히 진행 중임을 의미한다. 이것은 영혼의 해방과 자유를 위한 그의 여정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고, 이는 바로 미국의 역사와 문화에 끊임없는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으며 내일을 기약하게 만드는 ‘미국인의 꿈’을 상징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인의 꿈’속에서 그려지는 혁의 모습은 ‘미국인의 아담’(American Adam)³⁶⁾을 연상시킨다.

트웨인이 자유를 추구하고자 하는 혁에게 부여한 특징 중의 하나는 그가 선천적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순수한 본성을 지녔다는 점이다. 이때 자연은 단순히 문명과 대립하는 개념으로서의 자연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며, 세계를 구성하는 법칙 혹은 우주적 질서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자연과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이러한 우주적 질서에 순응하고 그 속에서 참다운 삶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처럼 혁이 지니고 있는 순수한 자연인으로서의 모습은 개척지에서의 미국인들이 이상적 인간형으로 삼았던 ‘미국의 아담’의 모습에서 그 근원을 발견할 수 있다.

‘미국의 아담’이란 자유를 끊임없이 추구하며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 문명에 물들기를 싫어하는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을 뜻한다. 자연적인 선을 존중하면서 인간내면의 자유를 추구하고 그 속에서 진정한 존재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미국의 아담’은 한 차원 높은 의식과 자아를 바탕으로 완전한 내면의 확장과 궁극적인 자유추구를 시도한다.

새로운 미국의 상황에서 발생된 새로운 특성들은 철저하게 새로운
한 인격체, 새로운 모험의 영웅으로 제시되었다. 즉, 역사로부터 해
방되고, 기꺼이 조상을 잃고, 가족과 혈통의 일상적 상속물로부터 영

36) R. W. B. Lewis, *The American Adam: Innocence, Tragedy and Tradition in the Nineteenth Century* (Chicago: Chicago UP, 1966), p. 5.

향을 받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한 개인의 이미지이다. 또한 홀로 설 수 있고 자신을 의지하고 추진력을 갖추고 그 자신의 독특하고 타고난 능력의 도움으로 앞에 그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든지 맞설 각오가 돼있는 개인이다. . . . 그의 도덕적 태도가 경험보다 앞서고 바로 그의 새로움에서 그는 근본적으로 순결하다. 37)

미국인에게 ‘미국의 아담’은 기존의 관습이나 문명을 떠나 새롭고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려는 자유로운 존재의 상징이다. 유럽의 전통이나 관습, 권위와 같은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난 개척민들은 신대륙을 무한한 자유와 가능성의 땅으로 여겼으며, 그 곳에서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그들의 희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다는 보다 훌륭한 국가(a more goodly country to feed their hopes)³⁸⁾를 건설하려는 이상을 키웠다. 이러한 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인물은 자존적이며 독립적이고 원초적인 순수함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그들은 생각했다. 또한 역사의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개척할 수 있는 용기도 지녀야 한다고 믿었다. 이러한 초기 미국인들의 생각이 형상화 된 일종의 상징적 인물이 바로 ‘미국의 아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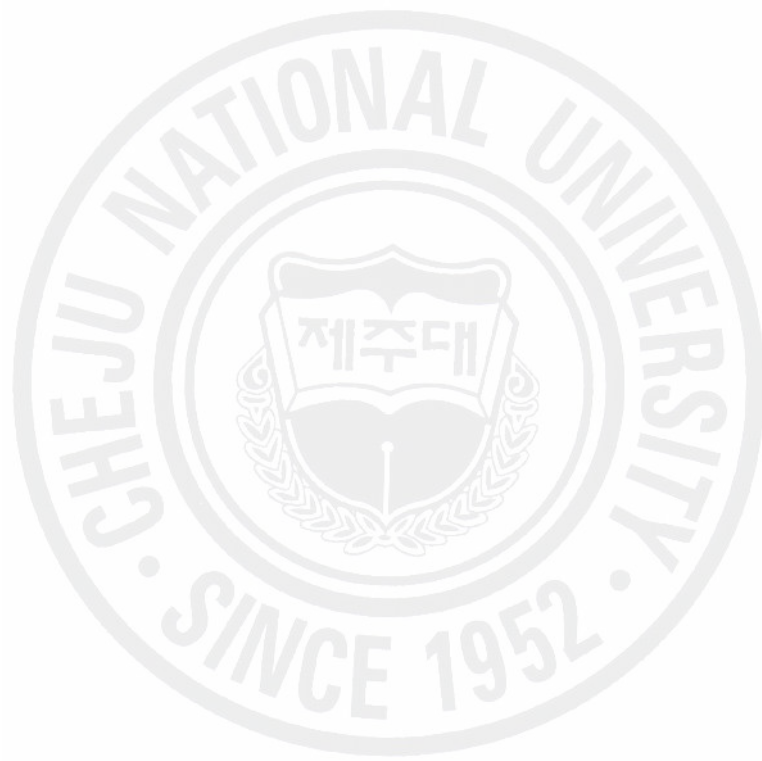
혁이 지니고 있는 인간적 면모들의 근원을 초기 개척민들이 생각한 ‘미국의 아담’의 모습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하지만 그가 전적으로 ‘미국의 아담’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논의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트웨인이 혁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견해는 ‘미국인의 꿈’이 지향하는 아담의 모습과는 다른 양상을 띠기 때문이다. 그 다른 양상의 핵심은 바로 자기 극복을 통한 내면의 도덕적 성찰이다. 즉, 혁은 ‘미국의 아담’이 지니고 있는 순수한 인간 본성의 계승자인 동시에 그 인간 본성을 더욱 냉철히 비판하고 내면화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삶의 방식을 찾아나가는 인물이다. 그리고 그 과정은 자유의 추구라는 형식을 지닌다.

혁은 노예 짐과의 자유추구 여행을 통해 순수한 자아를 가진 자연인으로써 인간이 본래 가지는 선한 마음 즉, 본연의 양심과 문명사회의 인습과 가치기준에

37) *Ibid.*, p. 5.

38) Sculley Bradley and others, *The American Tradition in Literature* (New York: Grosset & Dunlap, 1974), p. 16.

따르는 사회적 양심 사이에서 도덕적 갈등을 하게 된다. 그 내적 갈등을 통해서 비록 그가 어린 소년이지만 스스로의 양심(본연의 양심)에 의한 판단에 따라 지옥의 형벌을 당하더라도 노예인 짐의 탈출을 도와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다. 이로 인해 혁은 극적으로 내면의 갈등을 극복하고 자신의 희생을 감내하는 궁극적 자유추구의 성숙을 얻게 된다. 그리고 흑인노예를 단순히 하나의 소유물인 재산으로 생각하며 노동의 도구나 수단으로 취급하던 단계에서 하나의 평등한 인간 개체로 존중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하는 도덕적 성숙도 이루게 된다.



III. 결 론

혁은 자신이 찾고자 하는 삶은 인간사회의 모든 억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본질적이며 절대적인 자유 가운데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자각하는 모험심 가득하고 행동적인 인물이다. 이런 인물이 고통과 도덕적 갈등을 거쳐 완전한 자유인으로 성장하기까지의 자유추구 과정을 신체적·정신적 구속과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문명사회의 이기와 위선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인간애의 발견과 영혼의 자유로 나누어 논의해 보았다.

더글라스 미망인과 왓슨양의 문명화 교육으로 혁은 숨 막히는 정신적인 압박감을 느끼고, 아버지인 팡은 강 가운데 위치한 섬 오두막에 혁을 감금하기까지 하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구속한다. 그 구속으로부터 탈출하여 완전한 자유를 찾아 잭슨 섬에 도착하고 혁은 노예 도망자 짐을 만나게 된다. 이 두 사람의 도망은 실제상의 도망일 뿐만 아니라 혁에게는 자신을 문명화시키려는 더글라스 미망인 자매가 주는 정신적 압박감과 온갖 옥설과 폭력을 일삼는 아버지가 가하는 신체적 구속으로부터의 탈출이다. 또한 짐에게는 문명사회의 노예제도로부터의 탈출을 의미하게 된다. 이 두 사람의 탈출은 근원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자유를 추구하기 위한 여정이라고 볼 수 있다.

혁은 잭슨 섬을 탈출해 미시시피 강가에서 온갖 형태의 사회악을 목격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다. 그는 세 도둑이 강위 난파선위에서 약탈품 분배 문제로 인해 살인을 저지르는 사건과 그레이저포드 가와 세퍼드슨 가 사이의 반목과 셔번 대령이 보그스를 살해하는 사건, 그리고 사기꾼인 왕과 공작이 행하는 온갖 사기행각을 직접 적나라하게 체험한다. 이런 혁의 경험을 통해 트웨인은 인간에 대한 불신임과 황금만능주의로 인한 비인간성과 잔인성, 귀족사회의 부조리와 형식주의, 특권층의 권위주의와 인명경시 등, 문명사회의 폐단에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이다. 혁은 바로 이런 문명사회의 위선과 기만들로부터 오염되지 않은 인간성이 존중되는 건설하고 성숙한 사회 건설을 위해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혁은 자유를 위한 여정에서 노예탈출의 협조자라는 악을 행함으로

두 차례의 도덕적 갈등을 겪게 된다. 세상의 악이란 악을 모두 경험한 헉은 마침내 짐을 다시 만나게 되고, 짐을 고발하기로 결심하나 정작 노예 추적 끈을 만났을 때는 오히려 짐의 안전을 지켜준다. 당시 물질문명으로 상징되는 피터스버그에서 가치관을 정립한 헉은 처음에는 짐을 단순히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흑인으로 대우할 뿐이었다. 그러나 짐과 함께 뗏목을 타고 자유를 찾아다니면서 짐의 인간적인 모습을 목격한 지금 헉은 백인들이 그에게 심어놓은 흑인들은 천하다는 기존 가치관과 흑인들도 완전한 인간이라는 본연의 양심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된다. 결국 헉은 흑인도 백인과 다름없는 정신을 가진 똑같은 인간이라는 자기 내부에서 우러나오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한 차원 높은 도덕적 성숙에 이르게 된다. 짐을 구출한 후 펠프스 농장의 샬리 고모가 자신을 양자로 삼으려 하자 헉은 그녀의 제의를 거절하고 “영지(Territory)”(211)로 떠나기로 결심한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영혼의 해방과 자유를 위한 헉의 여정이 계속될 것임을 예상하게 된다.

헉은 자신을 구속하는 문명사회로부터 탈출하여 자연에서 그의 본성에 따르는 혹은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삶의 방식을 취한다. 왜냐하면 그가 거부하는 문명사회는 자연의 흐름과 조화하는 인간의 본성을 억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명사회는 그의 내면에도 영향을 주어 문명사회의 가치기준을 따르는 사회적 통념으로서의 양심을 가지게 한다. 그 결과 자연인으로서의 순수한 본연의 양심 사이에서 갈등을 유발하여 내적 자유를 구속한다. 이러한 내면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과정에서 트웨인은 헉으로 하여금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도덕적 성찰을 이루게 하며, 이러한 도덕적 성찰을 바탕으로 그에게 좀 더 본질적인 자유의 의미를 부여한다.

트웨인의 도덕적 성찰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냉철한 이해에서 비롯된다. 인간의 원초적 본성이 지니는 순수함은 사회적 관념으로서의 선함과 악함의 구분과는 거리가 있다. 자연으로 비유되는 우주적 질서가 인위적인 가치판단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처럼 인간의 본성 역시 그러한 성격을 지닌다. 그런데도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본성은 사회가 정해놓은 가치의 구분에 제약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인간의 본성은 사회가 정한 인위적인 통제 하에 놓이게 되며 스스로의 영혼을 억압하게 되는 모순을 낳는다.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고 자연스런 본성에 충실한

인간의 모습을 작가는 ‘인간 본연의 도덕적 성찰’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이 작품에서 트웨인이 제시하는 궁극적인 자유의 메시지이자 모든 인류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현 인류는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문명사회의 심각한 병폐를 드러내고 있다. 정치의 부정과 부패는 지속되고, 부의 집중화 현상은 거대 자본을 낳고 있다. 이윤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구조는 인간소외와 환경오염의 문제를 만들고 있으며, 그 속에서 인간은 점차 본연의 가치를 상실한 채 문명의 노예로 전락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작가가 이 작품을 썼던 시대로부터 백여 년이 지난 지금도 인간은 여전히 사회적 제도와 인습 그리고 물질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혁이 보여주고 있는 순수한 본성과 자유추구의 의지는 더욱 값진 의미를 지닌다. 비록 그 과정이 길고 어렵다 할지라도 인간의 가치를 부정하고, 자연과 조화하는 삶의 방식을 파괴하며, 순수한 본성을 억압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이다. 그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여전히 사랑을 받는 것은 자유를 추구하는 그의 여행이 계속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것은 자유로운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구속받는 삶을 살 것인가라는 작가의 물음이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함을 의미한다.

Bibliography

1. PRIMARY SOURCE

Twain, Mark. *The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97.

2. SECONDARY SOURCE

Adams, R. P. "The Unity and Coherence of Huckleberry Finn." *Twentieth Century Interpretations of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d. Claude M. Simps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68.

Andrew, Hook. *American Literature in Context III*. New York: Methuen, 1983.

Bloom, Harold. Ed. *Huck Finn*. New York: Norton, 1962.

Bradley, Sculley. Ed.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 New York: Norton, 1962.

Brooks, Van Wyck. *The Ordeal of Mark Twain*. New York: Dutton, 1920.

Colwell, James L. "Huckleberries and Humans: On the Naming of Huckleberry Finn." *PMLA* 14/3(1971): Princeton UP, 1971.

Cox, James, M. *Mark Twain: The Fate of Humor*. Princeton: Princeton UP, 1966.

Eliot, T. S. "An Introduction to Huckleberry Finn." *The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97.

Graff, Gerald & Phelan, James. Ed. *Mark Twain: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 Bedford: Bedford Books of St. Martin's Press, 1995.

Guerin, Wilfred. L et al. *A Handbook of Critical Approaches to Literature*.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79.

Hemingway, Ernest. *Green Hills of Africa*. New York: Charles Scribner's

- Sons, 1953.
- Hoffman, Daniel. *Form and Fable in American*.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61.
- Howells, W. D. "My Mark Twain: Reminiscences and Criticisms." *Mark Twain: His Life and Works*. Ed. I. M. Walker.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0.
- Lewis, R. W. B. *The American Adam: Innocence, Tragedy and Tradition in the Nineteenth Century*. Chicago: Chicago UP, 1955.
- Lynn, Kenneth S. *Mark Twain and Southwestern Humor*.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59.
- Marx, Leo. "The Machine in the Garden." *Mark Twain: Technology and the Pastoral Ideal in America*. Ed. Kenneth S. Lynn. London: Oxford UP, 1977.
- _____. "The Pilot and the Passenger: Landscape Conventions and the Style of Huckleberry Finn." *Mark Twain: Twentieth Century Views*. Ed. Henry Nash Smith.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63.
- Sloane, David E. Ed. *The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 American Comic Vision*. Boston: Twayne Publishers, 1988.
- Smith, Henry Nash. Ed. *Mark Twain: Twentieth Century View*.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63.
- Trachtenberg, Alan. *Huck Finn*.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77.
- Trilling, Lionel. "The Greatness of Huckleberry Finn."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 Ed. Sculley Bradley and others. London and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77.

김병철, 『개정 미국 문화사』. 서울: 한신문화사, 1983.

성창원, 「The Adeventures of Huckleberry Finn에서의 양심」.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2000.

최민성, 「허클베리핀의 모험에 나타난 혁의 성장과정」.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

교, 2005.

최상길, 「Mark Twain의 문명관과 종교관」. 박사학위논문, 강릉대학교, 1987.



<Abstract>

The True Meaning of Freedom
in *The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

Kim, Jae Shin

English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Byun, Jong Min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the true meaning of Huck's freedom by analyzing the three aspects of freedom in Mark Twain's *The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 the freedom away from physical and mental oppression, the freedom from hypocrisy and deception of civilized society, and the discovery of humanity and spiritual freedom.

Huck escapes from the well-intentioned civilizing restraint of Widow Douglas and Miss Watson and Old Pap's physical violence. To get away from all these oppressions, Huck flees to Jackson Island which is a paradise for him, and the place in which he finally meets Jim, a runaway slave. They enjoy freedom on Jackson Island.

Huck and Jim experience the towns along the Mississippi River. As they voyage through a cross-section of the South, Huck and Jim witness the feud between the Grangerford and the Sheperdon, the Col. Sherburn's murder of Boggs, and the rogueries of the King and the Duke. From all these Huck recognizes the mammonism, the inhumanity, and the evil of aristocracy in the industrialized and civilized society. He seeks true freedom away from the hypocrisy and deception of

the civilized society.

The manifestaions of Huck's inner goodness can be seen when Huck helps a runaway slave gain his freedom. He goes through various moral conflicts between a deformed conscience and a sound heart in doing this. At last, he decides to comply with his inner goodness though it goes against the conventional social value. From this inner growth, Huck develops sympathy for others. His self-reflection leads him to realize that humans share mutual responses that allows them to coexist with each other. Huck has found himself regarding Jim as the same human being throughout the moral conflicts experiences. He decides to leave the conventional civilized society and go to the Territory. This decision demonstrates his longing for the freedom to act on his own free will and his resistance against the systems and rules of the civilized society.

In conclusion, in Huck's journey, Mark Twain suggests that true happiness and freedom of human beings can be obtained not from greed for power or wealth but from understanding and respecting man's life and dignity. This recognition is the foundation to build a better society in which the members are to be free.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8.